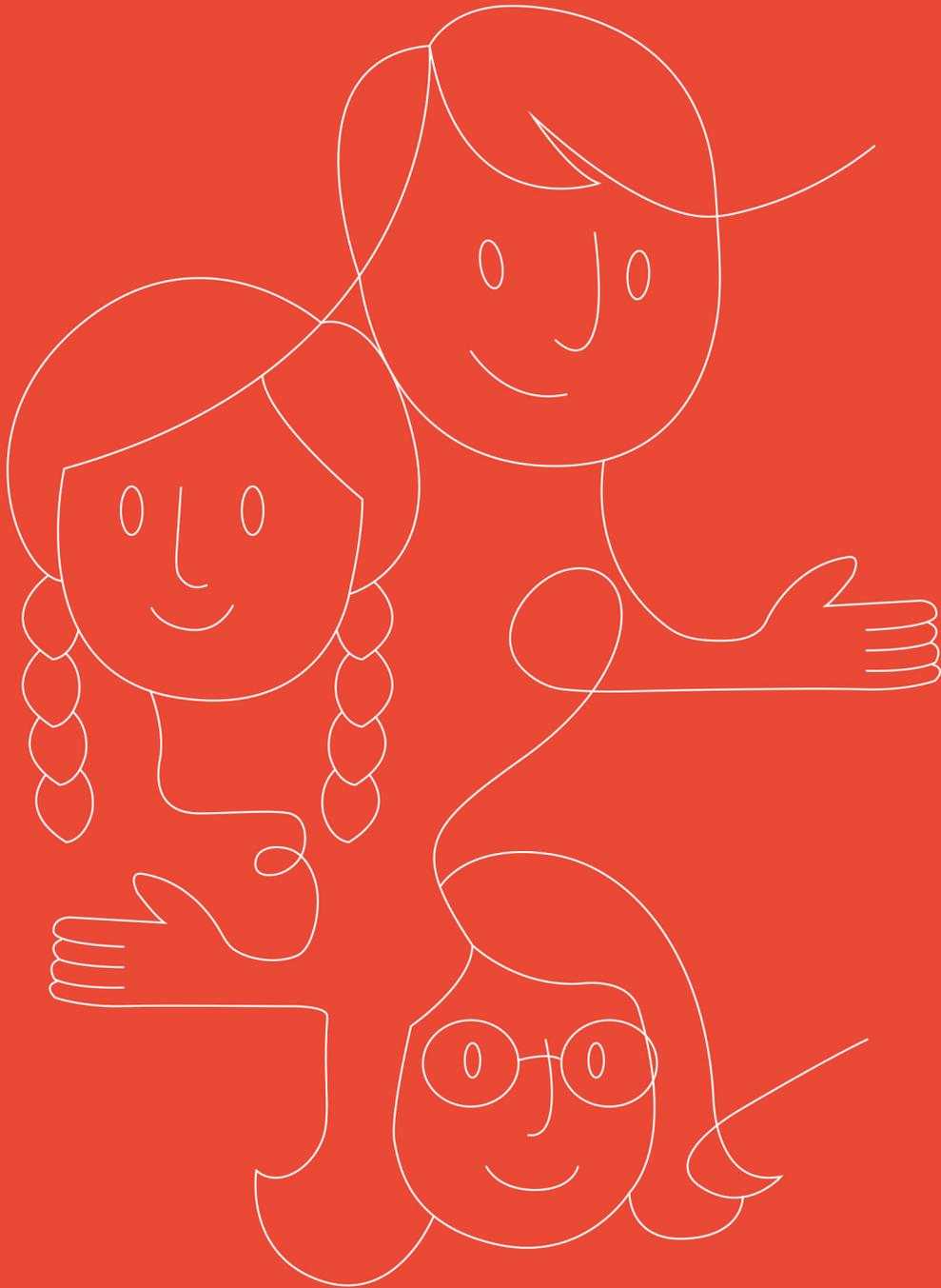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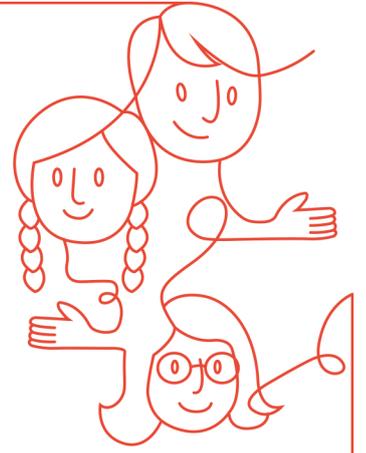


2020 어린이 문화예술 콜로키움

어린이의 웃음

202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학술연구 프로젝트 I





2020
어린이 문화예술
컬로키움 발표집

2020년 어린이 문화예술 콜로키움 세부일정

| 시간 | | 내용 | | 담당 |
|-------------------------|-----|-------------|--|---------------------|
| 사회: 김영미(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 | | | |
| 13:30 ~ 13:35 | 5분 |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발표자, 좌장, 토론자, 주요 인사 소개 | 김영미(팀장) |
| 13:35 ~ 13:45 | 10분 | 환영사 및 모두 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및 콜로키움 모두 발언 | 표문송(관장) |
| 13:45 ~ 15:30 | 30분 | 주제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제발표: 어린이와 웃음에 대한 이해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이국향 (디지털상담센터장) |
| | 45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제발표: 어린이 웃음 측정 설문지(지표) 개발 과정 및 타당성 검토 | 황인매 (성공회대 외래교수) |
| | 30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제발표: 어린이 웃음의 개념화를 통한 연결 집단 간 인식 비교 | 김채원 (위인협동조합) |
| 15:30 ~ 15:50 | 20분 | 휴식시간 | | |
| 15:50 ~ 16:50 | 50분 |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어주경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최정윤(화성어린이문화센터장) ■ 2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권미나(전북대학교 외부교수) ■ 3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민순덕(한국성서대, 칼빈대 외래교수) | |
| 16:50 ~ 17:00 | 10분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발언, 폐회인사, 기념촬영 | 표문송, 김영미 |

CONTENTS

01 어린이와 웃음에 대한 이해

| | |
|-----|----|
| 발제문 | 6 |
| 토론문 | 21 |

02 어린이와 웃음 측정 설문지 (지표) 개발 과정 및 타당성 검토

| | |
|-----|----|
| 발제문 | 24 |
| 토론문 | 41 |

03 어린이 웃음의 개념화를 통한 연결 집단 간 인식 비교

| | |
|-----|----|
| 발제문 | 45 |
| 토론문 | 65 |

CHAPTER

01

어린이와 웃음에 대한 이해

- 발제문: 이국향(데이지상담센터장)
- 토론문: 최정윤(화성어린이문화센터장)

어린이*와 웃음에 대한 이해

이국향**

1. 아동에 대한 이해

1)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이해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아동기라고 한다.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어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이 시기의 발달에서는 학교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판단도 획득하고 양심도 발달시켜 나가는 단계다. 학교생활을 통해 아동은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또래집단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므로 이 시기를 학령기라고도 한다. 이 시기에는 신체발달보다는 이미 획득한 지각과 운동기능을 보다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손병덕, 강란혜, 백은령, 서화자, 양숙미, 황혜원, 2006).

학령기 아동의 생활은 그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발달 과정의 단계로(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학 사전), 학령기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전까지 아동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위주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가정생활에 적응해왔다면 아동기 즉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 생활의 중심이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으로 옮겨지게 되는데(문은식, 김충희, 2002), 이 발달 단계는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객체로 성장하며 인지·정서적으로 자아의식을 정립하고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내적 갈등은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발달 과정의 위기임과 동시에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해건, 이모영 2017).

특히, 4학년은 초등학교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의 학년으로 학년 전환기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많이 받아들이며,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학생간의 개인차가 심해지는 시기이며, 잘하는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자기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한국인적성평가원, <http://www.3qtest.co.kr>). 4학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첫째, 학습, 신체, 독서력의 면에서 차이가 나는 시기이

* 본 연구의 주제는 어린이와 웃음이다. 어린이와 아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대한 가독성과 문맥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 온 데이저상담센터 소장

다. 4학년이 되면서 신체적 발달, 생활 태도, 학습, 독서력까지 아이들의 개인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학년까지 키워진 생활습관과 학습 습관, 인성 등이 드러나 아이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특히 독서력에서는 성인 독서 수준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그림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때부터 완전히 독서 독립기를 형성하며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영역의 책이나 작가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자신만의 독서 세계가 완전히 정립된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독서와 멀어져 읽기와 쓰기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진다. 둘째, 추상과 논리적 사고력이 형성된다. 4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인지능력의 극적 변화를 맞게 되고,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논리적 사고가 바탕이 된 추론 능력으로 가설, 검증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직접 경험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높아진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335973&memberNo=101693>

1. 82 초등생활백과사전 시리즈).

2) 학자별 아동기 발달단계 특성

아동기는 Freud의 심리성적 단계의 잠복기에 해당하며 본능적 욕구가 억압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은 줄고 동성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기이다. 본능이 억제되고 지적인 탐색이 활발해지며, 초자아가 발달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알아가는 시기이다. 잠복기의 특징은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단계에서‘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인 이 시기의 아동은 성취동기가 강하여 격려와 칭찬이 아동의 근면성을 발달시키고 비판과 비교는 열등감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는 특히 사회화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며, 사회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학교 시스템에 편입된다. 또한 굳이 학교뿐만 아닌 가정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 맥락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이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어 어떤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고려하는 보존개념, 사고의 가역성 등의 탈중심화를 얻는다. 또한 사물을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서열화와 유목화의 능력을 갖게 된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에서 아동기는 인습적 도덕기로 제 2수준에 해당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고, 법과 사회적 질서에 따르고, 권위있는 인물과 동일시하려 한다(김은혜, 2019). 인습적 도덕기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도덕성은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좋은 관계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그 대상이 부모를 넘어서 친

구, 선생님, 동네 어른들로 확장된다. 4단계는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준인 단계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기 싫더라도 지키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022026365221>).

< 표 1 > 학령기 아동의 학자별 발달단계

| Freud 심리성적발달단계 | Erikson 심리사회적발달단계 | Piaget 인지발달단계 | Kohlberg 도덕성 발달 |
|--|---|--|--|
| 잠복기 (6-12세) | 아동기/학령기 (6-11세) | 구체적조작기 (7-11세) | 2수준 인습적도덕기(6-12세) |
|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됨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성의 아이들과 어울림 -본능이 억제되고 지적인 탐색이 활발해짐 -초자아 발달 -자신의 성역할을 알아감 |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시기 -학교 통해 근면성 획득: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인지적 기술 획득 -또래관계 확장, 관계학습 -열등감 발달: 실수나 실패 반복, 학교나 사회의 편견적 태도 취할 때 발달 쉬움 -능력이란 기술의 심리적 기초, 이 단계부터 생산적인 일원으로 우리 문화에 합류 |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남 -보존개념 획득 -서열화(연역적사고) -유목화 -관계화(분류, 서열, 공간적, 인과적 관계 이해) | 3단계: 대인과의 기대, 관계, 동조단계 -속한 집단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어 행동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좋은 관계가 기준 -대상이 부모를 넘어 친구, 선생님, 동네 어른들로 확장 4단계:사회체제 및 법과 질서유지 단계 -법과 사회적 질서를 따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 -권위있는 인물과 동일시 |

3) 아동의 사회화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 교사, 또래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험하는 평가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자기이해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에너지를 내면화하여 사회 문화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사용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개념도 형성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기인식에서 출발한다. 아동의 자기인식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초래한다. 아동은 더 이상 놀이에만 만족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시킨다(손병덕 외, 2006).

(2) 또래관계

아동기에는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 생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또래집단은 사회화의 기능,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인지발달수준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집단의식이 발달하도록 한다(손병덕 외, 2006).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 표 2 >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개인요인 | -외로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정도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자기통제감과 관계)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적 정서 (의기소침과 낙심, 피곤과 무기력, 혼돈과 당황, 분노와 적개심 등과 깊은 관계) |
| 가정요인 | -부모 자녀 관계 -부모의 지지적 또는 적대적 양육태도 |
| 학교요인 |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먼저 개인 요인으로, 외로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또래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자들은 외로움이나 불안과 관련하여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자기통제감 등을 중시하고 있다. 또래 사이에서 인정받고 수용 받게될 경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증대시키게 되며, 반대로 배척받을 경우 감소시키게 된다.

가정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부모 자녀 관계와 부모의 지지적 또는 적대적 양육태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자녀의 인지적,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와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는 질 높은 또래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교사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지각되는 아이의 경우 다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의 정서적 지지(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와 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인정, 칭찬하는 것)가 또래관계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는 학급 교우들간의 신뢰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3) 도덕성 발달

도덕성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회집단의 규칙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덕성 발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은 학령기 이전에 초보적이지만 양심 또는 초자아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아동은 부모와 동일시하여 부모의 가치, 태도, 옳고 그름의 행동 기준을 받아들인다. 콜버그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인지발달과 함께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덕성을 정의감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정의감에 대한 개념도 더 성숙해진다고 보았다(손병덕 외, 2006).

(4) 대중매체의 영향

이 시기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다.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대중매체의 시청을 통해 아동들은 사회적 태도나 생각을 학습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들과 토론 등을 함으로써 아동들이 정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손병덕 외, 2006).

2. 웃음에 대한 이해

1) 웃음의 속성

사전적 의미로 '웃다'는 기쁘거나 만족스럽거나 우스울 때 얼굴을 활짝 펴거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웃음[laughter]이란 쾌적한 정신활동에 수반된 감정반응을 이른다. 웃음이란 특정 자극에 의한 생리학적 반응으로,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감 등에 관한 시각적 표현이며, 웃는 행위와 표정, 소리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만족이나 기쁨의 일시적 표현이다(네이버지식백과).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생존본능 중 하나이며, 웃음에는 심상적 표현, 관점의 전환까지 포함된다. 웃음은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놀라움, 기쁨 등에 수반되는 소리와 표정 반응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적 의미를 지님으로써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상담학사전).

한국어에서 '웃음이 넘친다'라는 말은 곧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웃음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이는 다양한 웃음의 정의와 의미에 비추어 생각해 볼 내용이다. 웃음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의 작용임과 동시에 신체적 작용이며,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타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한 영역으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류종영, 2006).

2) 웃음의 정의

웃음은 학문의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는데, 생물학자들은 ‘눈, 코, 입 등 얼굴 근육의 움직임과 횡경막의 움직임 그리고 일부 복근의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신체경련’을 웃음으로 보는 반면 심리학자나 인류학자의 정신적 심리적 정의에서는 ‘추하거나 부조화한 형상을 볼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심리현상’을 웃음으로 정의하고, 사회운동가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잘난 사람이 잘난 체하다가 망하는 것을 볼 때 생기는 통쾌한 감정’(류종영, 2006)이라고 정치적으로 웃음을 정의한다.

또한, 웃음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토머스 홉스는 "웃음의 감정은 타인의 약점 또는 자신의 이전의 약점과 비교해서 자신에게서 뜻밖의 우월감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갑작스런 승리감에 불과하다."고 정의한다.

19세기 초기 실험심리학자였던 알렉산더 베인은 웃음에 대해 “육체적 효과에서만 이 아니라 경쟁자를 앞서가거나 불쾌하게 하는 등 우리가 우월감을 획득하는 모든 곳에 웃음의 명백한 특징이 있다”고 정의하면서, 웃음이란 타인의 권위와 체면이 상실되었을 때에 느끼는 쾌감이라고 하였다.

I.칸트나 Th.립스는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긴장해 있을 때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서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A.쇼펜하우어는 어떤 관념과 관념이 불균형일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웃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자스틴은 놀람과 기대의 어긋남, 우수(優秀)와 실패, 부조화와 대조, 사교적 미소, 긴장의 해방, 유희의 여섯 가지로 웃음을 정리하였다(상담학사전).

< 표 3 > 웃음에 대한 정의

| 학자 | 웃음에 대한 정의 |
|-------------|--|
| 토머스 홉스 | “ 웃음의 감정은 타인의 약점 또는 자신의 이전의 약점과 비교해서 자신에게서 뜻밖의 우월감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갑작스런 승리감에 불과하다” |
| 알렉산더 베인 | 웃음이란 타인의 권위와 체면이 상실되었을 때에 느끼는 쾌감 |
| I.칸트나 Th.립스 |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긴장해 있을 때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서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 |
| A.쇼펜하우어 | 어떤 관념과 관념이 불균형인 상태 |
| 자스틴 | 놀람과 기대의 어긋남, 우수(優秀)와 실패, 부조화와 대조, 사교적 미소, 긴장의 해방, 유희 |

출처. 네이버백과사전

3) 웃음의 발생 동기와 이론 1)

웃음은 뇌에서 반응을 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정서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웃음 유발의 원인으로는 신체반응, 심리반응, 감정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유아기 때는 신체적 자극에 의한 생리적 웃음이 지배적이지만, 성장을 하고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웃음과 정서적 웃음의 자리가 점점 커지고, 지적 발달과 함께 유머로 인한 웃음이 발달한다. 그렇다면 웃음이 발생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웃을까? 웃음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론들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우월성이론, 불일치이론, 모순이론, 안도감이론이 있다(류종영, 2006; 임부연·오정희·최남정, 2008).

(1)우월성이론- 비웃음

대표적인 웃음이론의 하나인 우월성 이론은 영국의 철학자 Thomas Hobbes가 제기한 것으로, Hobbes는 웃음을 허영심이나 자긍심과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가 웃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의 발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월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웃는 것은 웃음의 대상이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것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나 자신의 이전의 결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Martin & Lefcourt, 1986) 따라서 이러한 웃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유래한 비웃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2)불일치이론- 부조화, 대비

부조화, 대비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불일치 이론은 James Beattie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어떤 상관관계 혹은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생각되는 동일한 것들의 집단에서 흔히 않은 혼합과 불일치로 나타나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이다(류종영, 2006; 임부연·오정희·최남정, 2008). 즉, 적합함과 부적합함의 대비, 동일한 결합체 내에서 통일된 또는 통일되었다고 여겨지는 관계와 이 관계의 결여간의 대비를 웃음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3)모순이론- 반전

Immanuel Kant는 웃음이 나오는 것은 긴장된 기대와 결부되어 있다는 모순성이론을 제시하였다(류종영, 2006). 이 이론에 따르면 긴장된 기대가 아무것도 아닌

1) 서양문화에서 웃음의 정체는 냉소이며, 냉소는 자기-중심적 자유의 존재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서구문화의 틀 속에서 배양되었다(김동규, 2010)고 보았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에서는 인간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웃음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웃음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도 축제와 같은 장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웃음이 허용되었는데, 특히 Bachtin은 카니발 웃음의 성격을 모든 사람이 웃는 '모든 민중의 집단적인 웃음'이자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편적 웃음'이면서 '유쾌한 환성인 동시에 조소적이며, 매장시킴과 생명을 일깨워 주는' 양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류종영, 2006). 베르그송(Henri Louis Bergson 1859~1941)은 저서 <웃음(Das Lachen)>에서 웃음과 희극적인 것을 동일시하며 "사람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기계적인 것의 광경"에 희극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며, 웃음이 기성의 경직된 구조를 역설적으로 전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네이버지식백과).

것으로 갑자기 전이 될 때 웃음이 터진다는 것으로, 어느 사회나 문화에는 상식적인 것이 통용되고, 상식이 모든 의식 활동을 지배하지만 이런 상식에서 벗어날 때 모순적이라고 여기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종종 웃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너무 슬플 때 눈물 대신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안도감이론- (에너지)발산

Kant의 모순성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Freud는 웃음이란 긴장감 속에 있다가 그 긴장감이 갑자기 사라질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는 안도감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김수지, 1993; 류종영, 2006; 박옥순, 2004; Freud, 1997). Freud는 유머를 내부에 감금된 충동의 발로라고 보면서 성적인 충동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축적된 내면에 잠재하는 정신적 에너지의 발산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Freud는 욕설이나 농담, 음담패설 등도 충동의 발산 즉, 웃음이라고 보았다(김수지, 1993; 박옥순, 2004; 이영미, 2003; 차문희, 2007; Freud, 1997).

이외에 웃음이란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 동시에 언급될 때 나오는 것이라는 ‘구성이론’,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인체의 평형기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반응으로 웃음을 유발시킨다는 ‘놀람이론’ 등 다양한 학설과 주장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웃음이론의 공통적 특성은 웃음이란 대부분 행동이나 말의 반복효과를 무의식적으로 느낄 때, 진실된 실체를 허풍이 나 과장스럽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모방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기대가 전복될 때 혹은 인물의 바보 같은 행위나 언사를 통해 우월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임부연·오정희·최남정, 2008).

4) 웃음의 종류 및 영향

(1) 웃음의 종류

웃음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 우리말샘에 나타난 웃음의 하위어는 웃음을 너털-웃음, 눈-웃음, 미소, 비웃-음, 실소, 쓴-웃음, 억지-웃음, 파안-일소, 포복-절도, 폭소, 함박-웃음, 헛-웃음, 희소 등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웃음을 묘사한 의성어에는 '하하', '호호', '히히', '허허', '푸하하', '크크', '킁킁', '낄낄', '낄낄', '꼭꼭', '헤헤', '헤헤', '후후', '헤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채팅, 특히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는 'ㅋㅋ', 'ㅎㅎ', '헤헤'와 같은 비공식적 의성어도 쓰인다. 또한 웃음에는 자연스러운 웃음, 인위적인 웃음, 순수한 웃음, 거짓된 웃음, 긍정의 웃음, 부정의 웃음 등이 있다. 이처럼 웃음에 대한 표현은 그 동기와 표현의 스펙트럼이 인간의 그 어떤 감정정보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웃음 이면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웃음의 스펙트럼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문현진, 2019).

(2)웃음의 영향

웃음은 인간 심신의 건강과 연관이 깊다. 신경생리학에서 볼 때, 웃음은 뇌의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부분의 활동과 관련되어 엔도르핀을 생산한다. 또 정서를 주관하고 인간 생존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대뇌변연계가 웃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대시키며 면역력을 높인다. 웃음은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적 긴장을 감소시켜 주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건강과 근육이완에도 도움을 주며, 심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친 뇌를 쉬게 하여 분노, 죄의식,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잘 웃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R.Provine), 전염성이 있고, 관계를 좋게 하며, 기억력을 좋게 하고, 면역력 향상과 수면장애 해소 등에 좋다고 말한다(상담학사전).

3. 웃음에 대한 선행 연구

1) 국내 연구

(1) 치료, 활동을 통한 웃음연구

아동의 웃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웃음활동(구제언, 2010; 김애희, 2012; 김나영, 2012; 김현영, 2014; 배진순, 2015; 장현선, 2016), 웃음치료(이수정, 2011; 서혜영, 2012), 웃음요법(김상희, 2016; 조상윤, 2011), 웃음체조(윤종미, 2009)를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다수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다루는 웃음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동기와 학업성취(윤종미, 2009), 일상적 스트레스(김현영, 2014), 긍정적 사고(김현영, 2014), 분노(조상윤, 2013), 스트레스 대처행동(조상윤, 2011; 김애희, 2012; 배진순, 2015), 대인관계(이수정, 2011) 학교생활적응(이수정, 2011; 김나영, 2012), 자기효능감(김나영, 2012; 구제언, 2010), 자존감(서혜영, 2012; 최순옥, 2011; 조상윤, 2013; 배진순, 2015; 장현선, 2015), 창의적 성향(서혜영, 2012), 사회적 능력(구제언, 2010; 조상윤, 2013), 스트레스 대처기술(최순옥, 2011), 불안(장현선, 2015), 자신감(장현선, 2016), 학습태도(장현선, 2016) 등이 웃음과 관련있음을 보고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웃음치료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윤종미(2009)는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후, 웃음체조 활동이 학업성취와 학업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구제언(2010)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후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자아 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수정(2011)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웃음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4~6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웃음치료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웃음치료가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성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서혜영, 2012) 등이 있다.

웃음은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영(2014)에 의하면 웃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데, 일상적 스트레스의 6가지 하위 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관련, 친구관련, 교사 및 학교관련 요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상윤(2013)은 연구를 통해 웃음감각이 높은 아동일수록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 웃음감각은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매개되며,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에 비해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사회성 점수가 높았고, 웃음 프로그램 참여 회기가 증가 할수록 얼굴 표정과 웃음소리에서 자신감, 적극성이 넘치며, 회기가 종료된 이후 에도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웃음활동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수줍음, 자신감 및 학습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수줍음은 감소한 반면 자신감 및 학습태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장현선, 2015). 웃음은 또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종미, 2009). 서혜영(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웃음치료가 자아존중감, 창의적 성향, 창의적 성향의 하위 영역인 독립심, 모험심, 집착성, 개방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김상희(2016)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웃음요법을 주 1회 40분씩 4주간 총 4회 시행하면서 10개월간 생리적 반응(타액면역글로블린 A, 타액 코티졸), 신체적 반응(소양증), 심리적 반응(우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웃음요법 중재 후에 실험군의 타액 면역글로블린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희, 2016)고 밝혔다.

(2) 치료, 활동 이외의 웃음연구

웃음치료 프로그램 이외에 아동이나 유아의 웃음을 알아보려는 연구 또한 눈에 띈다. 문현진(2019)은 사회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웃음의 성격에 대해 Bergson의 상황, 말, 성격의 희극성을 기준으로 탐색한 결과 사회과다운 '웃음'의 성격은 통찰적인 '일깨움'의 성격, 재미'의 성격, '해학과 풍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추론하였다.

유·아동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연구 역시 진행되었는데, 유아들의 웃음발생과 그 양상을 살펴본 결과 유아들은 상상, 자랑, 놀림, 우스꽝스러움 등에서 웃음을 표

출하고, 큰소리로 웃기, 킥킥 웃기, 미소 짓기, 자지러지게 웃기 등의 웃음 양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로 인해 유아들은 단지 긍정의 웃음뿐 아니라 부정의 웃음 등 다양한 웃음을 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차영숙, 2011).

김상한(2016)은 그림책에 나타나는 웃음과 웃음의 의미 탐색을 통해 웃음의 양가적 의미와 아동의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연구 결과 웃음은 인간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맞이하게 되는 순수하고 유쾌한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며, 경직되고 반복적이며 갇힌 것 같은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적인 시점에서 나타나고, 소통을 통한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외 연구

웃음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유머, 미소, 웃음의 신경학과 정신학에 대해 다룬 연구(Rodden, F. A., 2018), 유머감각 설문지의 발전(Svebak, S., 1996) 및 유머감각 척도에 대한 연구(Ruch, W., & Heintz, S., 2018; Bischoff, M., Schmidt, S., & Muehlan, H., 2020), 비웃음과 웃음 공포증에 관한 연구(Ruch, W., Altfreder, O., & Proyer, R. T., 2009; Forabosco, G., Ruch, W., & Nucera, P., 2009; Proyer, R. T., Ruch, W., Ali, N. S., Al-Olimat, H. S., Amemiya, T., Adal, T. A., ... & Bawab, S., 2009) 등이 발견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에 한정짓지 않고 아동 웃음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웃음관련 논문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소, 유머, 웃음치료 등을 미취학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미취학 아동의 웃음과 미소의 사회적 촉진에 대해 다룬 연구(Addyman, C., Fogelquist, C., Levakova, L., & Rees, S., 2018)를 살펴보면, 혼자 만화를 시청하는 아이들보다 쌍이나 그룹이 8배 더 많이 웃고 3배 정도 많이 미소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쌍과 그룹은 차이없음), 이는 유아들에게 있어 웃음이 단순한 유머에 대한 반응이 아닌 유연한 사회적 신호이자 반응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기 웃음의 과학을 다룬 연구(Addyman, C. & Addyman, I., 2013)는 아기들의 웃음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이자 정서적 참여의 표시로 볼 수 있고, 어린이 웃음의 음향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Tennis, K. 2009)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이기 보다는 내부정서 상태와 관련이 있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음향적 기능이 성숙해지며 성인의 웃음소리로 변해간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유치원생들의 웃음과 감정 공유 패턴(또래 또는 어른과 함께 했을 때)을 알아보려고 한 연구(Cekaite, A., & Andrén, M., 2019)도 있다. 이들은 유아교육 맥락에서 특히 아동과 세대 간(아동-성인/교육자) 웃음 위주로 전형적인 웃음 패턴과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누가 누구와 함께 웃는지, 어른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웃음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들의 웃음은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의 웃음은 어른들에게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웃음의 87%는 다른 아이들에게 향했고, 어른들은 어린이들보다 2.7배 더 자주 다른 어른들에게 그들의 웃음을 보냈다. 이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다른 웃음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은 주로 또래 집단에서 웃음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행복을 찾고 받았으며, 어른들은 종종 유치원의 제도적, 교육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세대간(아동-성인/교육자) 호혜적인 웃음은 드물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지숙(2017).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웃음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 489-501.
- 고해건·이모영(2017). 국내 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예술과 인간 3.1 : 23-46.
- 구제언(2010).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운동재활학회
- 김나영(2012).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웃음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동규(Kim Dong-Gyu). "웃음의 문화 형식의 한 가지 사례." 현대유럽철학연구 0.22 (2010): 85-112. 검은 담즙에서 배양된 웃음, 냉소.
- 김상희(2016). 아토피 피부염 아동을 위한 웃음요법의 효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지(1993). 유아의 유우머 반응도 및 감지도와 사회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애희(2012). 웃음활동을 병행한 집단미술치료가 방과 후 보육교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은혜(2019). 정신질환자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의 성장경험.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김현영(2014).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긍정적 사고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0942&cid=40942&categoryId=31531>
- 류종영(2006).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教育心理研究 16.2: 219-241.
- 박옥순(2004).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사유머수준이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순 (2015). 초등학교 학생들의 웃음활동이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
- 상담학사전, 2016.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 서혜영(201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성향에 대한 웃음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손병덕, 강란혜, 백은령, 서화자, 양숙미, 황혜원 공저(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 윤종미(2009). 웃음체조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
- 이영미(2003). 유아의 유머표현 및 유머반응과 또래유용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11). 웃음치료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효과성 검증: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임부연,오정희,and 최남정. "유아교실에서 발생하는 웃음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자유놀이 시간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4 (2008): 219-243.
- 정명숙(2009). 가족구조가 아동의 인성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현선(2015). 웃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 장현선(2016).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신감 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웰니스 학회
- 조상윤(2011). 웃음요법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 조상윤(2013). 웃음감각과 아동의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수정,and 도현심.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1 (2016): 131-132.
- 차문희(2007). 교사의 유머감각과 과학학습효과의 상관관계 연구.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초등생활백과사전시리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335973&memberNo=10169382>
- 최순옥(201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존감 및 스트레스 대처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인적성평가원, <http://www.3qtest.co.kr>.
- 한국일보뉴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022026365221>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학부모 개입 지침서, 우리 아이 사회성 이렇게 길러주세요.
- Addyman, C., & Addyman, I. (2013). The science of baby laughter. *Comedy Studies*, 4(2), 143-153.
- Addyman, C., Fogelquist, C., Levakova, L., & Rees, S. (2018). Social facilitation of laughter and smiles in preschool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9, 1048.
- Bischoff, M., Schmidt, S., & Muehlan, H.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 of the child humor orientation scale short-form. HUMOR, 1(ahead-of-print).
-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264–278.
- Cekaite, A., & Andr n, M. (2019). Children's Laughter and Emotion Sharing With Peers and Adults in Preschool. *Frontiers in psychology*, 10, 852.
- Gresham, F. M., & Elliott, S. N. (1984).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children's social skills: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School Psychology Review*.
- Forabosco, G., Ruch, W., & Nucera, P. (2009). The fear of being laughed at among psychiatric patients. *Humor*, 22(1–2), 233–251.
- Freud, G.(1997).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임인주 역). 서울: 열린책들. (원전 1960 출판)
- Lefcourt, H. M., & Martin, R. A.(1986). Humor and life status: Antidote to adversity.
- Proyer, R. T., Ruch, W., Ali, N. S., Al-Olimat, H. S., Amemiya, T., Adal, T. A., ... & Bawab, S. (2009). Breaking ground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fear of being laughed at (gelotophobia): A multi-national study involving 73 countries. *Humor*, 22(1–2), 253–279.
- Rodden, F. A. (2018). The neurology and psychiatry of humor, smiling, and laughter: a tribute to Paul McGhee Part II. *neurological studies and brain imaging. Humor*, 31(2), 373–399.
- Ruch, W., Altfreder, O., & Proyer, R. T. (2009). How do gelotophobes interpret laughter in ambiguous situations? An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concept. *Humor*, 22(1–2), 63–89.
- Ruch, W., & Heintz, S. (201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vised Sense of Humor Scale and the construction of a parallel form. *Humor*, 31(2), 235–257.
- Svebak, S. (1996). The development of the Sense of Humor Questionnaire: From SHQ to SHQ-6.
- Tennis, K. (2009). The Acoustic Features of Children's Laughter (Doctoral dissertation, Th se soutenue   l'Universit  Vanderbilt (USA)).

‘어린이와 웃음에 대한 이해’ 토론문

최정윤*

아동기에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며, 또래관계가 사회집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다.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웃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웃음에 대한 정의와 이론들이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어린이 웃음에 대한 이론적 기저와 이를 기초로 한 어린이박물관에서 웃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토론자는 정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며,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웃음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어린이의 웃음에 대한 연구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웃음은 얼굴표정, 발성 등 관찰 가능한 비언어적인 정서의 표현으로서 생존과 적응적인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웃음은 영아기부터 나타나며, 발달단계에 따라 웃음의 표현, 이해능력, 그리고 조절능력이 점차 발달하므로, 어린이의 웃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주관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위장이 가능하며,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정서를 연구하는 데에 제한이 많았으며 학문의 영역으로 인식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다. 에크만과 이자드와 같이 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자들에 의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코딩하는 기법과 생리학적 변화의 측정을 통해 보편적인 정서가 보고되면서 학문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정서의 기능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들이 발견되면서 연구는 가속화되었다.

정서는 내적, 외적 사건에 의해 촉발되며, 뇌와 중추신경계에 보내진 신호로 신체는 생리학적 변화로 반응하며(심박수, 혈압, 땀, 호르몬 분비 등 신체적인 영역), 눈에 보이는 행동(얼굴표정, 자세, 목소리, 신체 움직임 등 표현적인 영역)의 변화를 동반한다. 아동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석하게 되며,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인지적인 영역). 아동은 매일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발달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는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며,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문제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즉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억압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양양된 정서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하지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장

못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공감능력이 부족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는 다양한 요소를 가진다. 어린이박물관에서의 경험과 관련지어 어린이의 정서표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동시에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경험하는 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연구주제와 활용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는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아동의 웃음 패턴에 대한 조사이다. 어린이박물관 내 어떤 영역 또는 어떤 전시에서 빈번하게 웃음이 관찰되는지, 웃음의 강도와 지속성은 어떠한지, 개인적인 경험 혹은 집단적인 경험인지, 자발적인지 혹은 비자발적인지, 또 웃음의 요소들과 전시의 학습효과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박물관의 전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차후 전시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의미있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아동기 웃음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웃음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해 볼 수 있다. 정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지식, 전략을 기초로 세심하게 기획된 상호작용 전시를 통하여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2

어린이와 웃음 측정 설문지(지표) 개발 과정 및 타당성 검토

- 발제문: 황인매(성공회대 외래교수)
정종민(위인협동조합 위촉연구원)
- 토론문: 권미나(전북대학교 외부교수)

어린이*와 웃음 측정 설문지(지표) 개발 과정 및 타당성 검토

황인매**

정종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웃음은 아동의 분노를 조절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높여주며(조상윤, 2013), 자신감과 학습태도(장현선, 2016)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사고를 갖는데 기여하며(김현영, 2014),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대시킨다(상당학 사전, 2016). 웃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아동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학업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증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웃음은 아동에게 행복감의 척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웃음은 한 가지 감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으로부터 생긴다. 우리말샘에 나타난 웃음의 하위어는 웃음을 너털-웃음, 눈-웃음, 미소, 비웃-음, 실소, 쓴-웃음, 억지-웃음, 파안-일소, 포복-절도, 폭소, 함박-웃음, 헛-웃음, 희소 등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웃음에 대한 표현은 그 동기와 표현의 스펙트럼이 인간의 그 어떤 감정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또한, 웃음에는 자연스러운 웃음, 인위적인 웃음, 순수한 웃음, 거짓된 웃음, 긍정의 웃음, 부정의 웃음 등 웃음 이면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웃음의 스펙트럼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문현진, 2019).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웃음이 아동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어린이의 웃는 웃음이 서로 다르고 웃음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과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웃음의 동기/상황), 어떻게(웃음의 종류) 웃는지 알 수 있다면 아동의 웃음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의 웃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6개 학년의 넓은 분포를 감안하여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우선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은 '작은 사춘기' 시기이자 학년 전환기(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에 해당하여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참여대상과 연구내용의 확장을 통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학술연구로서 어린이

* 본 연구의 주제는 어린이와 웃음이다. 어린이와 아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대한 가독성과 문맥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위인협동조합 위촉연구원

웃음 연구의 모델이 되고 이를 반영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관기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절차

1) 연구방법

아동의 웃음척도연구는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참고할만한 기존의 척도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아동의 웃음을 설명하는 이론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웃음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도연구방법을 접목하였고¹⁾, 개념도를 통해 나온 아동의 진술문을 축약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척도는 측정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측정 도구를 말한다. 척도개발연구는 이러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이며, 척도가 측정 대상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과정을 거친다.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온 이론체계와 관련 척도를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할 문항을 더하여 척도를 개발한다. 최근에는 이론체계가 부족한 연구주제의 경우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척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추세이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사전참조 자료나 확립된 이론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 연구 단계에서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특정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잠재적 구조 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접근법으로, 관계자들의 관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Paulson et al, 1999; Trochim, 1989).

척도개발접근에서 통계적 접근(내적 접근, 귀납적 접근)은 요인분석을 사용한다. 요인분석은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는데 문항이나 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을 모아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즉, 관계가 높은 문항들이나 변인들을 묶어 하나의 요인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관찰된 변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요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절차는, 첫째, 문항점수를 얻거나 변인들을 측정하고, 둘째, 문항이나

1) 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에 대한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분석절차가 구조화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탐색을 위해 수집된 질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근거이론 접근법과는 다른 강점을 갖는다. 근거이론 접근법의 경우 현상에 대한 적합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관심 대상 및 영역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풍부하고 생생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지만, 분석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념도 방법을 활용할 경우, 근거이론에 비해 분석절차가 간소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류와 명명과정에 참여자들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써 연구대상의 고유한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윤정·김계현, 2007). 비록 개념도 방법이 추론통계를 활용한 가설검증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선행 연구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적 연구에 유용하다

변인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고, 셋째, 회전하지 않은 요인을 추출하고, 넷째, 요인을 회전시키며, 다섯째, 회전된 요인과 관계있는 요인 부하량이 큰 문항이나 변인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요인을 해석하고 이름을 부여한다.

요인분석은 목적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들이 집단화되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립하고 문항들의 요인계수를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한다(Clark & Watson, 1995).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웃음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찾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의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요인을 탐색하는 요인분석으로 이제까지 이론상으로 그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쳤거나 기존의 척도로서 이미 요인이 확인되어 변수들 간의 기존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입증할 때 사용한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린이 웃음을 측정하는 설문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아동의 웃음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진술문 도출을 위한 초점질문 예시안을 만드는 단계로 연구진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나(자녀)는 언제, 어떻게 웃는다”라는 초점질문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어린이 웃음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단계로 자유로운 응답 방식을 선택하고 참여자들에게 초점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이나 괄호 넣기를 활용하여 완성하도록 진행한다. 3단계는 최종진술문 생성을 위한 인터뷰 단계로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를 축약, 편집하여 목록을 구성한다. 반복 응답이나 유사 단어의 경우 빈도를 고려하여 정리하고 높은 빈도를 보이는 문장의 경우에는 핵심 문장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진 논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진술문을 도출하였다. 4단계는 최종진술문을 설문으로 만들어 연구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최종도출된 50개의 진술문에 대해 사전 신뢰도 검사 및 내용 타당도 검사를 참여 아동,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단계는 최종진술문에 대한 최종지표 도출단계로 본 조사 실시 후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통해 최종지표 20개를 도출하였다.

< 표 1 > 연구 절차

| | | |
|-----|---------------------------------|--|
| 1단계 | 아동의 웃음에 대한 문헌. 선행연구 검토, 초점질문 도출 | ○ 아동의 웃음에 대한 관련 문헌검토 후, '나(자녀)는 언제, 어떻게 웃는다' 초점질문 생성 - 문헌고찰 후 예시안 생성, 연구진 내부 논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과 평가. 초점질문 결정 |
| 2단계 | 웃음 아이디어 수집 | ○ 아동의 웃음 발생 동인 파악을 위한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 인터뷰 - 아동 21명, 보호자 10명 대상 |
| 3단계 | 최종진술문 도출 | ○ 1단계에서 수집된 아이디어 정리 (1,047개 아이디어 생성) - 총 7차에 거친 축약 및 편집 - 반복 응답, 유사 단어 빈도 정리 - 높은 빈도에 따른 핵심문장 선정 - 참여 연구진과 전문가 자문 - 총 50문항 최종진술문(예비문항) 도출 |
| 4단계 | 예비조사. 본조사(설문조사) | ○ 최종도출된 최종진술문(예비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아동 28명 대상 서베이) ○ 최종도출된 최종진술문(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연구진, 외부전문가 1인) ○ 최종진술문 50문항에 대한 본조사(서베이) - 2개 학교, 초4 200명 아동 대상 |
| 5단계 | 요인 구조 확인 및 최종지표 도출 | ○ 본 조사 실시 후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검사 - 4개 요인 총 20문항 최종지표 도출 |

3) 연구참여자

어린이박물관의 협조로 총 4차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1명, 보호자 10명 등 총 31명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남아 8명, 여아 13명으로 여아가 좀 더 많았고, 보호자는 여성이 대다수를 보였다. 거주지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 용인지역으로 부천보다는 많았고, 가족 구성은 4인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 표 2 > 와 같다.

< 표 2 > 웃음 아이디어 참여자 특성

| | 아동 | | 보호자 | |
|-------|--------|----|--------|----|
| | 남 | 여 | 남 | 여 |
| 성별 | 8 | 13 | 1 | 9 |
| 참여자 수 | 21 | | 10 | |
| | 31 | | | |
| 거주지 | 용인 | 부천 | 용인 | 부천 |
| | 16 | 5 | 9 | 1 |
| 연령 | 11~12세 | | 평균 43세 | |
| 가족 구성 | 3인가족 | | 2 | |
| | 4인가족 | | 15 | |
| | 5인가족 | | 2 | |
| | 6인가족 | | 1 | |
| | 7인가족 | | 1 | |

3. 연구 분석 결과

1) 아이디어 및 최종 진술문 도출 과정

어린이의 웃음에 관한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초점질문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진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 1인으로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점질문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자문받았다. 최종 선정된 초점진술문은 “나는 (언제) (어떻게) 웃는다.”이다.

초점질문은 아동에게는 “나는 (언제) (어떻게) 웃는다.”로 하여 포스트잇이나 전지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자는 “나의 아이는 (언제) (어떻게) 웃는다.”로 하여 A4 질문지 양식 안에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과 보호자는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약 2시간 정도로 진행하였다.²⁾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문은 총 1,046개가 수집되었다.

아이디어로 수집된 진술문을 축약 및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웃음이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친구’ 122회, ‘엄마’ 62회, ‘아빠’ 39회 순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을 받을 때’ 36회, ‘미소’ 35회, ‘~을 먹을 때’ 33회, ‘~(과) 하며 놀 때’ 29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속으로 웃는다.’ 또는 ‘혼자

2) 아동들이 진술문을 작성할 때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고, 책상 위에는 전지를 펼쳐 놓아 그 위에 다양한 종류의 펜과 포스트잇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아동들은 자신의 웃음을 적는 활동에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웃음 아이디어를 처음 작성할 때는 막연하고 잘 기록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아동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웃음 아이디어를 작성할 정도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보호자들은 자녀의 웃음 상황을 기대한 것보다 많이 작성하지 못함에 답답해하기도 하였다.

웃는다.’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웃음 아이디어 진술문 단어별 빈도

| | | | | | | |
|------|-----|------|----|------|----|-------|
| 친구 | 엄마 | 내(가) | 아빠 | 받(다) | 미소 | 먹(다) |
| 122 | 62 | 56 | 39 | 36 | 35 | 33 |
| 놀(다) | ~하며 | 속으로 | 게임 | 칭찬 | 학원 | 이겼(다) |
| 29 | 28 | 24 | 22 | 17 | 15 | 15 |

아동들의 답변은 대부분 “언제(~할 때) 웃는다.”로 나왔으며, 웃음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어떻게 웃는다.”는 구체적인 진술(예, 재미있게, 하하, 깔깔, 히히 등)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웃는지에 대한 표현들은 매우 다양하고 참여자 각자의 상황에 따른 주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아동들은 웃음의 상황을 떠올리고 기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아이디어 축약 시 진술문의 형태를 “언제 웃는다.”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이 웃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는 것과 놀이(게임, 유튜브 등) 외에도 ‘혼자 있는 시간’, ‘생각할 때’, ‘~가 혼날 때’, ‘질투가 날 때’,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문 축약은 약 2주간 7차례에 걸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축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2회 이루어졌다. 축약³⁾은 선행문헌검토를 통해 확인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술 빈도수가 많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1차 작업에서는 모든 진술문을 하나씩 읽어보며 비슷한 성격의 진술문으로 묶었으며, 2차 작업은 묶여진 진술문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3차 작업에서는 소수의 진술문들에서도 아동의 웃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을 최종 진술문에 포함시켰다.

축약된 진술문의 구성 문항은 설문대상이 아동임을 감안하고, 요인구조화 과정에서 제외되는 문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최종진술문으로 50문항을 선정하였고 해당 내용은 <표 4>와 같다.

3) 축약 및 편집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분리하고, 핵심단어를 선택하고, 명확성을 위한 편집 및 수정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거나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포함할 경우, 분리 또는 삭제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진술문은 핵심단어와 연구주제, 축약 목적에 맞게 최종 진술문으로 확정되었다.

< 표 4 > 최종 진술문

| 최종 진술문 | |
|--------------------------------------|--------------------------------------|
| 1.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2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
| 2. 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다. | 27.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
| 3.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 28. 나는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 웃는다. |
| 4.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공짜로 생겼을 때 웃는다. | 29. 나는 내 외모가 만족스러울 때 웃는다. |
| 5. 나는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돌볼 때 웃는다. | 30. 나는 다른 사람을 장난으로 놀리거나 골탕먹일 때 웃는다. |
| 6. 나는 거짓말로 장난칠 때 웃는다. | 31.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 때 웃는다. |
| 7.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웃는다. | 32. 나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웃는다. |
| 8. 나는 실수해서 창피할 때 웃는다. | 33.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운동,음악,게임) 웃는다. |
|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웃는다. | 34. 나는 간섭받지 않을 때 웃는다. |
| 10.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웃는다. | 35. 나는 누가 내 편을 들어 줄 때 웃는다. |
| 11. 나는 학원이 끝났을 때 웃는다. | 36.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 12. 나는 용돈이 생겼을 때 웃는다. | 37.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때 웃는다. |
| 13.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때 웃는다. | 38.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웃는다. |
| 14. 나는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 39.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 15.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았을 때 웃는다. | 40. 나는 무섭거나 긴장되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웃는다. |
| 16. 나는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생겼을 때 웃는다. | 41. 나는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웃는다. |
| 17.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부모님께 혼났을 때 웃는다. | 42. 나는 귀찮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웃는다. |
| 18. 나는 축하받거나 축하할 때 웃는다. | 43. 나는 부끄럽거나 속스러울 때 웃는다. |
| 19. 나는 재미있는 것을 볼 때(TV,유튜브,영화 등) 웃는다. | 44.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는다. |
| 20. 나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할 때 웃는다. | 45.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 웃는다. |
| 21. 나는 재미있는 생각을 할 때 웃는다. | 46. 나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웃는다 |
| 22. 나는 놀이공원 갔을 때 웃는다. | 4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장구쳐줄 때 웃는다. |
| 23. 나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웃는다. | 48.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 |
| 24.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 | 49. 나는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스럽고 어이없을 때 웃는다. |
| 25. 나는 해야할 일을 끝냈을 때 웃는다. | 50.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웃는다. |

N = 50

2) 최종 지표 도출 과정

최종도출된 50개의 진술문은 설문지로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 이전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해 문항의 적합도 등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총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장의 가독성, 질문 문항의 변별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지표의 변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 아동의 경제적 상황이 변인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설문 결과, 문항 내적신뢰도는 .958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조사는 인천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2곳의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4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⁴⁾ 설문 구성은 최종 진술문으로 만들어진 50문항을 4점 Likert 척도로 하였다. 설문 결과 무응답 및 중복응답이 다수인 6개의 설문지는 제외되어 194개의 설문지가 자료로 처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 아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⁵⁾,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학교는 인천지역 1곳, 용인지역 1곳이며 응답자는 각각 105명, 89명으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학교

| | 변인 | N | % |
|----|------|-----|-------|
| 학교 | 인천지역 | 105 | 54.1 |
| | 용인지역 | 89 | 45.9 |
| | 전체 | 194 | 100.0 |

연구 참여 아동의 성별은 남자 99명, 여자 86명, 무응답 9명으로 결과는 <표 6>과 같다.

4) 코로나 팬데믹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 가능한 학교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천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2곳의 학교에서 2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외부인의 학교 방문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설문지를 아동들에게 배포하고 취합하였다.
5)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연구 참여자 섭외가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 표 6 > 성별

| 변인 | | N | % |
|----|-----|-----|-------|
| 성별 | 남자 | 99 | 51.0 |
| | 여자 | 86 | 44.3 |
| | 전체 | 185 | 95.4 |
| 결측 | 무응답 | 9 | 4.6 |
| 전체 | | 194 | 100.0 |

연구 참여 아동의 가족 형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179명, 한부모가정은 11명, 조손가정은 3명으로 결과는 < 표 7 > 과 같다.

< 표 7 > 가족 형태

| 변인 | | N | % |
|----|-------|-----|-------|
| 가족 | 일반가정 | 179 | 92.3 |
| | 한부모가정 | 11 | 5.7 |
| | 조손가정 | 3 | 1.5 |
| | 전체 | 193 | 99.5 |
| 결측 | 무응답 | 1 | 0.5 |
| 전체 | | 194 | 100.0 |

연구 참여 아동의 형제 관계는 형제가 없는 경우가 33명, 첫째인 경우 83명, 첫째가 아닌 경우 77명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 표 8 > 과 같다.

< 표 8 > 형제 관계

| 변인 | | N | % | |
|----|-----------|-----------|-------|------|
| 형제 | 형제가 없는 경우 | 33 | 17.0 | |
| | 형제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 83 | 42.8 |
| | | 첫째가 아닌 경우 | 77 | 39.7 |
| | 전체 | 193 | 99.5 | |
| 결측 | 무응답 | 1 | 0.5 | |
| 전체 | | 194 | 100.0 | |

(2) 분석결과

5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07$ 로 높게 나왔으며,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로 하였고, 요인추출은 주성분방식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하는데, 공통성(Communality)이 낮아 문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성분행렬에서 다른 문항과 동시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중복 부하의 문항과 수치가 낮은 문항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통성이 가장 낮은 문항과 중복 부하가 가장 높은 문항부터 순차적으로 제외하였으며, 공통성에서는 .4미만, 성분행렬에서 중복 부하는 .4이상과 낮은 문항은 .4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같은 성분(요인) 안에 있는 문항 간의 성격과 개념도의 군집을 함께 고려하였다.⁶⁾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 1인⁷⁾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으며, 100여 차례가 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 20문항이 결정되었다.

4개 요인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16$ 으로 높게 나왔으며, KMO 표본 적합도⁸⁾는 0.788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적절한 문항임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KMO 표본 적합도 및 Bartlett's 검정

| | | |
|-----------------------|---------------------|-----------|
| Kaiser-Meyer-Olkin 측도 | | 0.788 |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근사 카이제곱(χ^2) | 1,099.937 |
| | 자유도(df) | 190 |
| | 유의확률(Sig.) | 0.000*** |

* <0.1 ** <0.05 *** <0.01

공통성에서 낮은 문항들로는 '6. 거짓말로 장난칠 때 웃는다.', '37.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때 웃는다.', '16.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생겼을 때 웃는다.', '42. 귀찮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웃는다.' 등과 유사한 성격의 문항이 많았으며, 문항의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진술문으로 보인다. 다른 요인의 문항과 중복 부하로 나온 문항들로는 '14.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20.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할 때 웃는다.', '10.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웃는다.', '44.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는다.' 등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문항들이 많았다.

6) 개념도 군집 관련 내용은 콜로키움의 세 번째 발제문 내용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7) 최종지표 도출 과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대학에서 고급통계를 강의하고 있는 박사 1인을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위촉하였다.

8) 표본적합도(MSA)는 0.80이상 ~ 0.90미만을 '높은 편인 값(meritorious)', 0.70이상 ~ 0.80미만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값(middling)', 0.60이상 ~ 0.70미만을 '보통 수준의 값(mediocre)', 0.50이상 ~ 0.60미만을 '빈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값(miserable)', 0.40이상 ~ 0.50미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값(unacceptable)으로 분류 해석한다(이영준, 2002).

평균이 가장 높게 나온 문항은 ‘28. 나는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 웃는다.’와 ‘36.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가 각각 3.54로 나왔으며, 평균이 가장 낮게 나온 문항은 ‘48.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와 ‘24.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로 각각 1.59, 1.72로 나타났고, 결과는 <표 10> 과 같다. ‘28. 나는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 웃는다.’와 ‘36.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가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웃음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48.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와 ‘24.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가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은 사회적 통념상 보이지 않아야 할 반응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표 10 > 주요 문항 기술통계

| 문항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1.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194 | 1 | 4 | 3.47 | 0.568 |
| 3.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 194 | 1 | 4 | 3.37 | 0.702 |
| 8. 나는 실수해서 창피할 때 웃는다. | 192 | 1 | 4 | 2.08 | 0.951 |
| 13.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때 웃는다. | 192 | 1 | 4 | 3.09 | 0.896 |
| 15.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았을 때 웃는다. | 193 | 1 | 4 | 3.49 | 0.678 |
| 23. 나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웃는다. | 192 | 1 | 4 | 3.14 | 0.835 |
| 24.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 | 194 | 1 | 4 | 1.72 | 0.716 |
| 2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 193 | 1 | 4 | 3.50 | 0.630 |
| 27.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 194 | 1 | 4 | 3.43 | 0.732 |
| 28. 나는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 웃는다. | 194 | 1 | 4 | 3.54 | 0.653 |
| 32. 나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웃는다. | 193 | 1 | 4 | 1.90 | 0.794 |
| 36.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192 | 1 | 4 | 3.54 | 0.700 |
| 38.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웃는다. | 192 | 1 | 4 | 3.02 | 0.812 |
| 39.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193 | 1 | 4 | 3.40 | 0.759 |
| 40. 나는 무섭거나 긴장되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웃는다. | 194 | 1 | 4 | 2.14 | 0.990 |
| 43. 나는 부끄럽거나 썩스러울 때 웃는다. | 193 | 1 | 4 | 2.40 | 0.996 |
| 46. 나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웃는다. | 194 | 1 | 4 | 2.72 | 0.942 |
| 4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장구쳐줄 때 웃는다. | 194 | 1 | 4 | 2.89 | 0.884 |
| 48.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 | 194 | 1 | 4 | 1.59 | 0.671 |
| 50.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웃는다. | 193 | 1 | 4 | 2.73 | 1.047 |
| 유효 N(목록별) | 181 | | | | |

4개 요인의 설명분산은 52.32%로 요인구성이 적합하게 나왔다. 설명분산은 요인

들이 연구주제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설명분산이 낮을수록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요인별 분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인 1은 14.96%, 요인 2는 14.33%, 요인 3은 11.94%, 요인 4는 11.07%로 결과는 <표 11>과 같다

< 표 11 > 웃음 척도의 공통성 및 성분행렬

| 구분 | 문항 | 공통성 | 성분 | | | |
|--|-------------------------------------|-------|--------|--------|--------|--------|
| | | | 1 | 2 | 3 | 4 |
| 정서적 충족 | 36.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0.609 | 0.757 | 0.076 | 0.069 | 0.157 |
| | 03.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 0.628 | 0.751 | 0.241 | 0.083 | -0.009 |
| | 39.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0.556 | 0.655 | 0.309 | -0.105 | 0.142 |
| | 50.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웃는다. | 0.485 | 0.632 | -0.002 | 0.217 | 0.196 |
| | 01.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0.515 | 0.617 | 0.354 | -0.065 | -0.071 |
| 자기인정 | 27.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 0.633 | 0.345 | 0.709 | -0.075 | 0.070 |
| | 28. 나는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 웃는다. | 0.619 | 0.339 | 0.672 | -0.101 | 0.206 |
| | 4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장구쳐줄 때 웃는다. | 0.505 | -0.009 | 0.657 | 0.144 | 0.229 |
| | 2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 0.502 | 0.256 | 0.587 | 0.104 | 0.283 |
| | 46. 나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웃는다. | 0.450 | 0.174 | 0.586 | 0.211 | -0.177 |
| 사회적 기술 | 43. 나는 부끄럽거나 속스러울 때 웃는다. | 0.586 | 0.107 | 0.311 | 0.680 | -0.123 |
| | 48.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 | 0.514 | 0.272 | -0.200 | 0.623 | -0.110 |
| | 24.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 | 0.480 | -0.060 | -0.178 | 0.611 | 0.268 |
| | 40. 나는 무섭거나 긴장되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웃는다. | 0.441 | 0.122 | 0.216 | 0.604 | 0.120 |
| | 32. 나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웃는다. | 0.404 | -0.034 | -0.034 | 0.550 | 0.315 |
| | 08. 나는 실수해서 창피할 때 웃는다. | 0.458 | -0.200 | 0.355 | 0.541 | 0.009 |
| 해방감 | 13.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때 웃는다. | 0.560 | 0.030 | 0.008 | 0.105 | 0.740 |
| | 23. 나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웃는다. | 0.467 | -0.002 | 0.066 | 0.068 | 0.677 |
| | 15.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았을 때 웃는다. | 0.599 | 0.298 | 0.360 | -0.056 | 0.614 |
| | 38.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웃는다. | 0.456 | 0.288 | 0.175 | 0.149 | 0.566 |
| 아이겐값 | | | 2.993 | 2.866 | 2.389 | 2.216 |
| 공통분산(%) | | | 14.967 | 14.332 | 11.943 | 11.078 |
| 누적분산(%) | | | 14.967 | 29.300 | 41.242 | 52.321 |
| KMO= .788, Bartlett's $\chi^2= 1099.937(p<.001)$ | | | | | | |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 명을 결정하였다. 요인 1은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과 안정감이 반영된 문항으로 '정서적 충족', 요인 2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인정하는 문항으로 ‘자기인정’, 요인 3은 타인과의 관계와 외부상황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회적 기술’, 요인 4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문항으로 ‘해방감’ 등으로 명명하였고,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요인별 신뢰도는 요인 1(정서적 충족)은 .748, 요인 2(자기인정)는 .749, 요인 3(사회적 기술)은 .687, 요인 4(해방감)는 .669로 모든 요인이 신뢰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요인별 Cronbach's α

| 1요인 | 2요인 | 3요인 | 4요인 |
|--------|------|--------|------|
| 정서적 충족 | 자기인정 | 사회적 기술 | 해방감 |
| .748 | .749 | .687 | .669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린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의 웃음’을 주제로 접근하였고 어린이가 웃는 ‘상황’을 주요 동인으로 설정하였고 아동의 진술문을 탐색하여 아동의 웃음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아동의 웃음 척도는 4요인(정서적 충족, 자기인정, 사회적 기술, 해방감)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요인은 양호한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웃음의 요인을 보면 1요인 정서적 충족(14.98%)과 2요인 자기인정(14.33%)이 가장 많은 비율의 설명력(29.30%)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동의 웃음이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충족되고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6세~11세까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달키는 시기로 자아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에 속하면서(Erikson, E. H., 1963), 이와 동시에 아동은 여전히 부모 안에서 정서적 충족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1요인 정서적 충족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웃음은 정서적 충족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reud를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학자와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충족은 아동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정서적 충족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동기 시절 신체적 학대나 방임은 학대를 받지 않은 아동보다 결핍과 불안, 우울증, 문제행동, 불안정한 대인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요인 정서적 충족의 웃음은 아동에게는 생존과 같은 웃음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보건복지부, 2000).

2요인 자기인정은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에서 인습적 도덕기로 제 2수준에

해당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고, 법과 사회적 질서에 따르고, 권위있는 인물과 동일시하려 한다(김은혜, 2019). 제 2수준은 가정을 넘어 사회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인습적 도덕기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도덕성은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좋은 관계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그 대상이 부모를 넘어서 친구, 선생님, 어른들로 확장된다.

3요인 사회적 기술(11.94%)은 아동의 웃음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극복하거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Gresham Elliott(1984)은 아동발달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또래에서의 수용도 혹은 인기도,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긍정 혹은 부정의 판단, 그리고 또래에서 수용도 및 의미 있는 타인의 판단과 일치하려는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 또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으로 수용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웃음에 대한 아동의 가치판단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관적 가치 및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가치가 포함되어 내면으로 흡수하고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방식으로 웃음의 표현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웃음방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혼나는 상황에서 웃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외적으로 웃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자기내부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4요인 해방감(11.09%)은 아동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웃음의 동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거나 자율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동 성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아동의 웃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웃음을 야기하는 상황도 다양함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아동이 웃음을 짓는 상황과 웃음의 양상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웃음은 타인과 자신이 함께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속으로 웃는다.’, ‘미소짓는다.’, ‘혼자 웃는다.’ 등 타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웃음을 상당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들의 웃음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동의 웃음 척도를 개발하였으므로 아동의 진술로 만들어진 척도라는데 그 의의가 크다. 사실, 종래의 아동과 관련된 지표는 일정 부분 아동전문가, 또는 아동정책결정자인 성인의 관점에서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당연히 아동 전문가들의 관점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이자 이후 연구 결과의 수혜자인 아동의 관점도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아동의 관점이 반영된 ‘아동 중심 아동지표(Child-centered Indicators)’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한다(Fattore, Mason & Watson, 2009)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9) 전문가

의 관찰이나 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웃음을 파악하는 방법도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겠으나, 아동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웃음을 자발적으로 기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아동의 진술문은 아동의 웃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웃음의 변인이 다양하고 그 양상도 다르므로 진술문을 토대로 웃음의 변인을 정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연구방법은 웃음의 요인을 찾는데 효과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웃음 척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학술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웃음을 연구하게 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웃음에 관심을 가지고 웃음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아동의 웃음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동의 웃음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아동의 웃음이 아동의 자아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확인하여 아동에게 긍정적인 웃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웃음에 관한 선행연구가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척도 문항이 소수의 아동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아동의 웃음 연구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아동의 웃음 변인을 더 탐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이 경기도와 인천 등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한정되어 모든 초등학생에게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척도연구가 요구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웃음 변인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지역적 편중 또한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코로나 펜데믹으로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에서 응답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펜데믹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이번 웃음 척도 개발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펜데믹 영향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아동 웃음의 변인을 찾고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웃음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에는 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며, 웃음의 변인들도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9)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보호권, 생존권, 교육권 이외에 아동의 참여권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생활 영역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행복 추구하고 관련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아동지표 개발에 '아동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이옥, 2012).

< 참고문헌 >

- 김은혜(2019). 정신질환자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의 성장경험.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김현영(2014).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긍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 문현진(2019). 사회과다운 '웃음'의 성격 탐색,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보건복지부(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도서출판 석정.
- 이옥(2012). 아동중심의 아동지표 연구.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 장현선(2016). 웃음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신감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
- 조상윤(2013). 웃음감각과 아동의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상담학사전(2016).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허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Clark, L. A., & Watson, D. (1995).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7(3), 309-319.
- Fattore, T., Mason, J. & Watson, E. (2009). When children are asked about their wellbeing: Towards a framework for guiding policy. *Child Indicators Research*, 2, 57-77.
- Paulson, B. L. Truscott, K.,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어린이와 웃음 측정 설문지(지표) 개발 과정 및 타당성 검토 토론문

권미나*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및 심리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웃음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웃음 척도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웃음 환경을 마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러 과정을 거쳐 개발된 웃음 척도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접목하여 웃음 척도의 진술문을 도출한 후 내용타당도와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체로 척도의 구성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를 파악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만 실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결과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는 이 부분에 대해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지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은 충분히 실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회전하는 방식은 직각회전과 사각회전 방식이 있습니다. 직각회전 방식은 추출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상관관계가 0일 경우 사용하며, 요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각회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현상의 경우 추출된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0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각회전의 경우에는 요인 간 상관이 없는 경우 직각회전의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각회전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는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맥스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웃음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그 근거에 대해 추가설명이 본문에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 간에는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표자는 사각회전 종류인 오블리민(oblimin)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설명하면, 개발된 척도의 하위 요인 간에는 어느 정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관을 보일 때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다중공선성 검증 기준($r < .80$)보다 높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야 각 요인들의 독립성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선희, 2012; 조수정, 2013). 따라서 웃음 척도의 구성 요인으로 도출된 4개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의 독립성도 증

* 전북대학교 외부교수

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척도 개발 연구에서 타당성 검증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준거타당도, 예측 타당도, 교차타당도 등 여러 타당화 작업을 통해 개발된 척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타당화 과정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웃음은 아동의 분노조절,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웃음 척도와 위 변수들 간의 상관이나 영향력을 파악해 봄으로써 준거 및 예측타당도가 검증되었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문항이 아동의 웃음을 충실히 측정한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라도 웃음 척도의 타당화가 재검토되어 아동 웃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에 본 척도가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요인3 ‘사회적 기술’에 해당하는 문항 중 48번, 24번, 32번의 경우 외부상황에 적응 및 생존과 관련된다 보기 어려우며,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설명한 요인3에 대한 내용으로도 위 3문항이 ‘사회적 기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웃음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주며, 아동이 언제, 어떻게 웃는지 알 수 있다면 아동의 웃음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서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론의 내용으로 볼 때 48번, 24번, 32번 문항이 웃음 척도를 구성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에 포함된 모든 문항의 평균이 중앙치 2.5보다 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하며, 요인 3에 대해 ‘사회적 기술’이라는 요인 명을 부여하는 대신 역채점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요인의 명칭을 다시 설정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이 신뢰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척도 개발 연구인만큼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 신뢰도 검증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실시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번 더 설문을 실시하는게 어렵다면 확보된 설문자료로 반분신뢰도를 추가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4개 요인의 총 설명분산이나 각 요인별 설명분산 결과 각각의 요인이 균형 있게 웃음 척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척도의 설명력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참고할만한 선행연구의 부족과 웃음 척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웃음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웃음이 사라지고 많은 국민들이 우울감에 빠진 이 시기에 아동의 웃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리며, 개발된 웃음 척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수정 (2013).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CHAPTER

03

어린이 웃음의 개념화를 통한 연결 집단 간 인식 비교

- 발제문: 김채원(위인협동조합)
- 토론문: 민순덕(한국성서대, 칼빈대 외래교수)

어린이 웃음의 개념화를 통한 연결 집단 간 인식 비교

김채원*

웃음은 간단한 신호지만,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현상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관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웃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품성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지혜로 인식되기도 한다.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행위인 웃음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양육과 교육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청소년기에 막 들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웃음발생 요인들을 규명하고 연결 집단 간의 인식비교를 통해 어린이들의 웃음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들의 내면을 살피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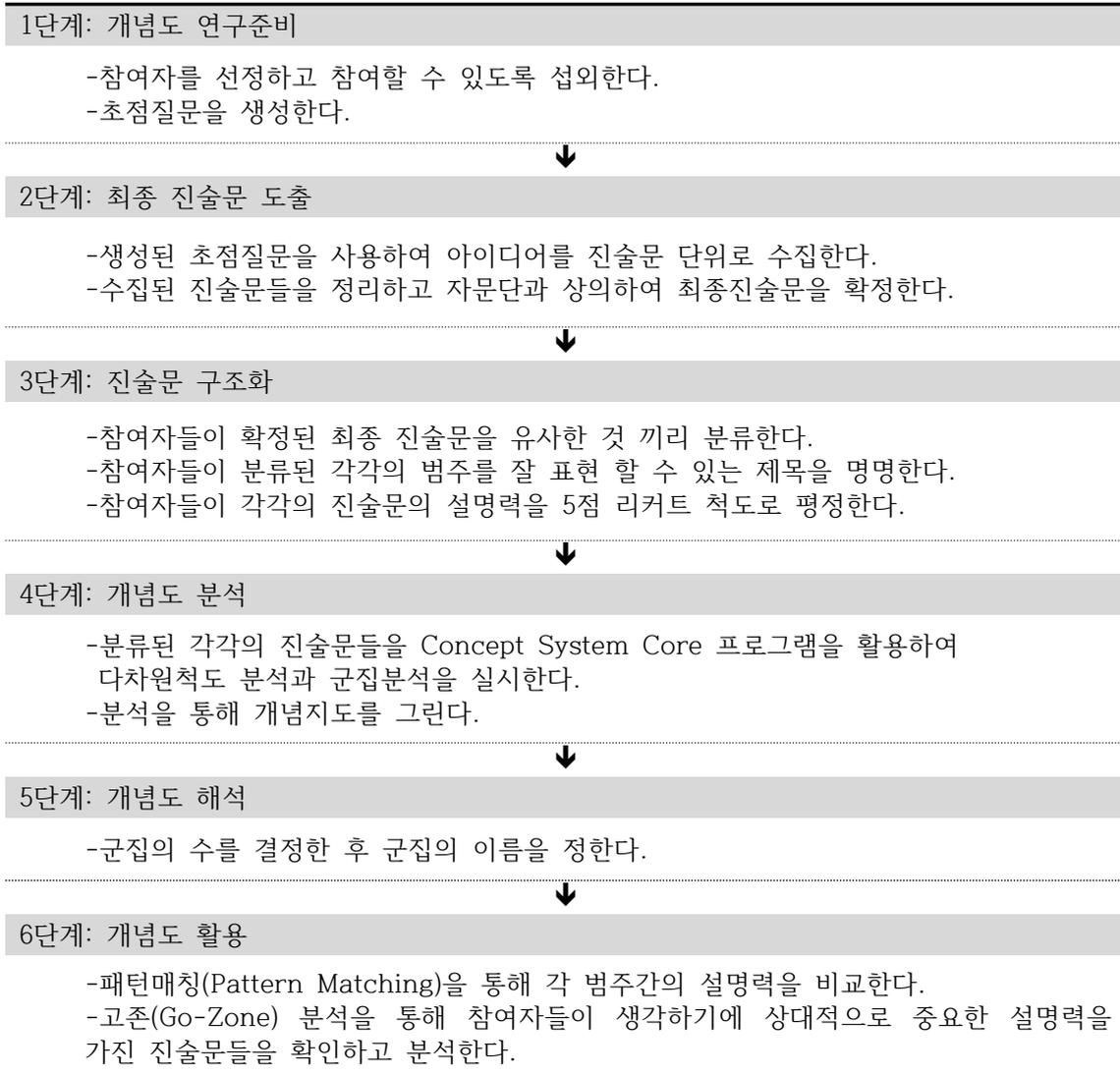
1. 개념도 연구 과정

개념도 연구방법이란, 참여자 집단을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구조화된 개념들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참여자 집단의 논의를 구조화하고 촉진하는 질적인 과정과 논의된 주제에 대한 개념구성을 통계분석 등을 통해 개념지도로 보여주는 양적인 과정을 혼합한 통합연구방법이다(Kane and Trochim, 2007). 특히, 미국 Cornell 대학에서 개발한 Concept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아이디어 반영을 쉽게 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며 그림과 지도와 같은 시각적 효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천현장에 근거한 연구에 매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웃음을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고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개념화 하여 연결 집단 간 인식의 차를 확인하기 위해 Kane and Trochim(2006)이 제시한 개념도의 6단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진행절차와 단계별 과정은 [표 1-1]과 같다.

* 위인협동조합 위촉연구원

[표 1-1] 연구의 진행절차 및 단계별 과정



1) 개념도 연구 준비

개념도 준비과정에는 연구참여자 선정과 초점질문 생성과정이 포함된다. 어린이 박물관의 협조로 총 4차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21명, 보호자 10명 등 총 31명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나(자녀)는 언제, 어떻게 웃는다.”로 하여 어떤 상황에서 웃는지를 어린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과 최종진술문 통합 및 편집

참여자들을 4 그룹으로 나누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여 총 1,046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축약 및 편집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분리하고, 핵심단어를 선택하고, 명확성을 위한 편집 및 수정(용어통일)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거나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포함할 경우, 분리 또는 삭제

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진술문은 핵심단어와 연구주제, 축약 목적에 맞게 최종진술문으로 확정 되었다. 확정된 50개의 최종진술문이 분류 및 평정 작업에 사용되었다.

3) 진술문 구조화

진술문의 구조화를 위한 분류 및 평정작업에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8명, 보호자 4명, 교사 8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하였다. 50개의 진술문을 유사한 진술문끼리 묶는 분류작업은 교사 8명과 전문가 3명이, 진술문의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평가는 참여자 23명 모두가 참여하였다.

분류 및 평정은 Kane and Trochim(2007)이 제시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류는 진술문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사한 내용의 진술문끼리 분류하는 과정은 1) 하나의 범주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될 것 2) 50개의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지 말 것 3) 한번 분류된 진술문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지 말 것 4) 유사성이 없는 진술문을 모아서 ‘기타’ 범주로 처리하지 말 것 같은 조건만 제시한 후 비구조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평정 작업은 각 진술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드 척도 형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분류 및 평정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2] 와 같다.

[표 1-2] 분류 및 평정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구분 | 빈도(명) |
|---------------------|-----|-----|-------|
| 분류 참여자 (n=11) | 성별 | 남 | 2 |
| | | 여 | 9 |
| | 연령 | 30대 | 3 |
| | | 40대 | 3 |
| | | 50대 | 5 |
| 직업 | 교사 | 8 | |
| | 상담사 | 3 | |
| 평정 참여자 (n=23) | 성별 | 남 | 5 |
| | | 여 | 18 |
| | 연령 | 10대 | 8 |
| | | 30대 | 5 |
| | | 40대 | 5 |
| | | 50대 | 5 |
| | 직업 | 학생 | 8 |
| | | 주부 | 4 |
| | | 교사 | 8 |
| | | 상담사 | 3 |

4) 개념도 분석

분류와 평정 작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념도 프로그램인 ‘컨셉시스템 코어 4.0(Concept System software core 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5) 개념도 해석 및 분석결과 논의

개념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얻은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단계로써 알맞은 군집의 수와 명명을 위해 1차로 연구진들이 상의하여 군집의 수와 이름(개념)을 정하고, 개념도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 어린이 웃음의 개념화 결과

개념도의 주요 결과는 포인트 지도(point map), 군집지도(cluster map), 군집평정 지도(cluster rating map), 패턴매칭(pattern-matching), 고존(go-zon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도의 생성은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직관적으로 통찰 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집단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Kane and Trochim, 2007).

1) 어린이 웃음 요인의 목록화

최종적으로 확정된 어린이들의 웃음 요인에 대한 진술문은 [표 2-1]과 같다.

[표 2-1] 어린이들이 지각한 50개의 웃음 요인

| 최종 진술문 | |
|-----------------------------------|--------------------------------------|
| 01.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2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
| 02. 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다. | 27.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
| 03.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 28. 나는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 웃는다. |
| 04.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공짜로 생겼을 때 웃는다. | 29. 나는 내 외모가 만족스러울 때 웃는다. |
| 05. 나는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돌볼 때 웃는다. | 30. 나는 다른 사람을 장난으로 놀리거나 골탕 먹일 때 웃는다. |
| 06. 나는 거짓말로 장난칠 때 웃는다. | 31.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 때 웃는다. |
| 07.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웃는다. | 32. 나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웃는다. |
| 08. 나는 실수해서 창피할 때 웃는다. | 33.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운동, 음악, 게임) 웃는다. |
| 09.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웃는다. | 34. 나는 간섭받지 않을 때 웃는다. |
| 10.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웃는다. | 35. 나는 누가 내 편을 들어 줄 때 웃는다. |

| | |
|---|--------------------------------------|
| 11. 나는 학원이 끝났을 때 웃는다. | 36.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 12. 나는 용돈이 생겼을 때 웃는다. | 37.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때 웃는다. |
| 13.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때 웃는다. | 38.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웃는다. |
| 14. 나는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 39.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 15.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았을 때 웃는다. | 40. 나는 무섭거나 긴장되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웃는다. |
| 16. 나는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생겼을 때 웃는다. | 41. 나는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웃는다. |
| 17.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부모님께 혼났을 때 웃는다. | 42. 나는 귀찮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웃는다. |
| 18. 나는 축하받거나 축하할 때 웃는다. | 43. 나는 부끄럽거나 쑥스러울 때 웃는다. |
| 19. 나는 재미있는 것을 볼 때 (TV, 유튜브, 영화 등) 웃는다. | 44.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는다. |
| 20. 나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할 때 웃는다. | 45.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 웃는다. |
| 21. 나는 재미있는 생각을 할 때 웃는다. | 46. 나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웃는다. |
| 22. 나는 놀이공원 갔을 때 웃는다. | 4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장구쳐줄 때 웃는다. |
| 23. 나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웃는다. | 48.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 |
| 24.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 | 49. 나는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스럽고 어이없을 때 웃는다. |
| 25. 나는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웃는다. | 50.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웃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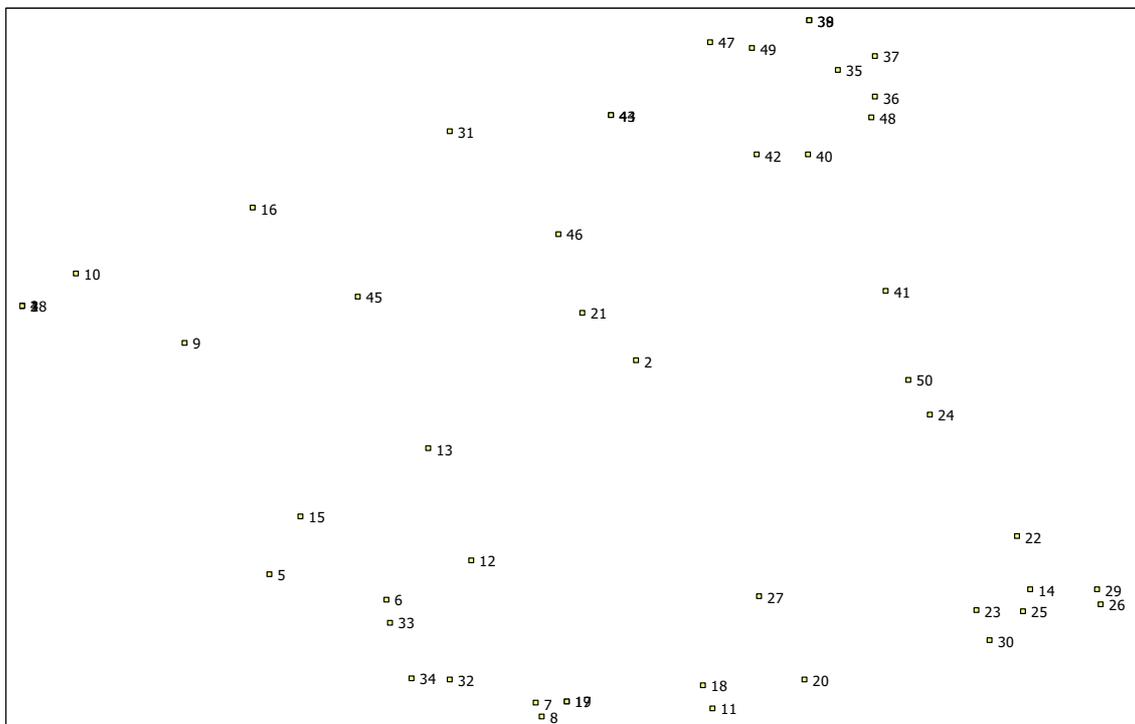
2) 포인트지도: 진술문들의 유사성

최종적으로 확정된 50개의 진술문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인트 지도를 만들어 확인하였다. 포인트지도는 전문가와 교사들이 50개의 진술문들을 분류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포인트지도는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들의 점수를 가능한 타당하게 나타나도록 X-Y 그래프의 구성에 적합한 이변량 분포의 지도 위에 점들로 나타낸다. 각각의 포인트 간의 거리는 진술문 간의 유사성이 높을 경우 서로 가깝게 위치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멀리 위치한다. 지도상의 위치가 가까운 포인트들은 진술문 분류 참여자들이 이들 진술문 간의 관계를 유사하게 인식하며, 진술문들이 군집으로 모여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Kane and Trochim, 2007). 다차원척도분석에 따른 문항들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값¹⁾

1) 다차원 척도 분석에서는 핵심 통계진단을 “스트레스(stress)” 값이라고 부른다. 이 스트레스 값은 분류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값을 기반으로 도출된다. 스트레스 값은 다차원 공간에 나타나는 진술문 간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보는 것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보는 방법과 유사하다. 스트레스 값은 진술문과 진술문을 분류한 분류자가 많을수록 주요한 개념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진술문의 수와 분류자의 수가 적당할수록 스트레스 값은 낮아지며 통계적으로 알맞은 지도를 보여준다. 다차원척도분석에서는 공식적으로 스트레스 값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Kruskal의 스트

이 유효한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개념도 연구에서는 0.206 ~ 0.365 사이에 스트레스 값이 존재할 때 연구결과가 적합하다고 본다(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and Trochim, 2007). 일반적으로 개념도 연구법에서는 진술문의 수와 참여한 사람의 수가 많거나, 구조화 하려는 개념이 간단할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재영 외, 2013).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값은 0.258로 나타나 개념도 연구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스트레스 값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린이들의 웃음 요인에 대한 진술문의 위치를 포인트 지도로 시각화 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진술문의 위치를 시각화한 포인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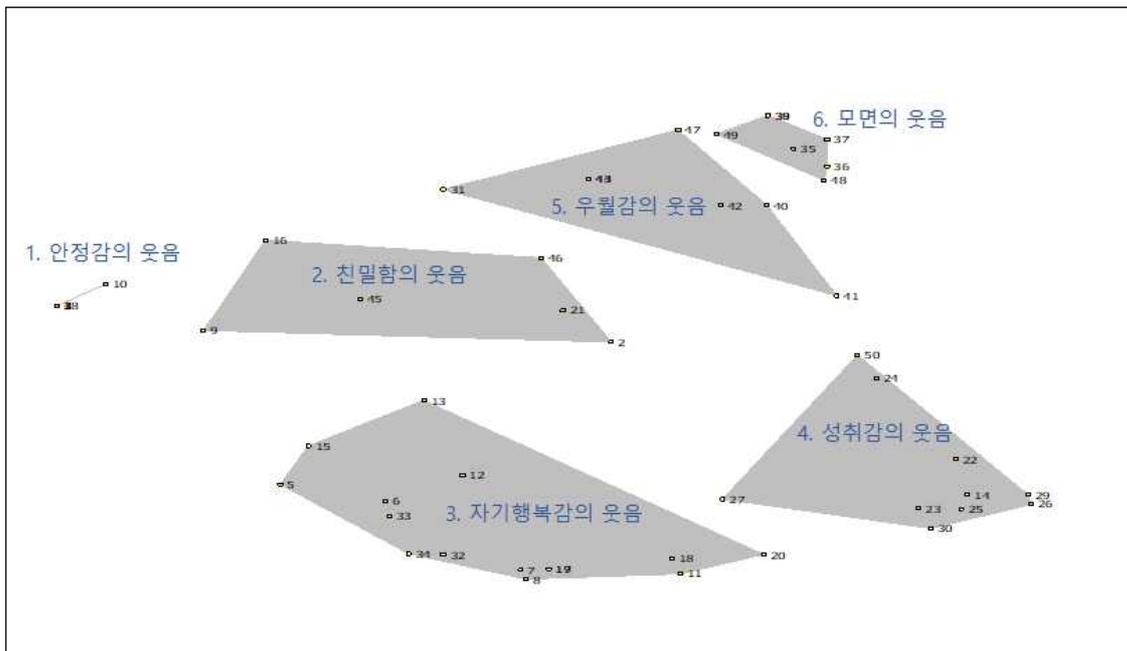
3) 군집지도: 진술문들의 군집화

어린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웃음요인에 관한 진술문들이 어떻게 분류 될 수 있는지 확인 하기위해 군집지도를 만들어 시각화 하였다. 이전의 포인트 지도는 각 진술문들 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차원에서 각 진술문들의 위치를 지정하지만, 군집지도는 진술문들 간의 관계를 트리구조에 근거해 분화시키면서 지도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레스 값 기준은 0.0= 완벽하다, 0.025= 아주 좋다, 0.05= 좋다, 0.1= 나쁘다, 0.2이상 매우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군집의 수를 10개에서부터 1개씩 줄여나가며 군집이 구성되는 내용을 살펴본 후 각 군집간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군집의 형성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군집으로 구조화 하였다. 군집지도의 경우에는 참여자나 자문단 또는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군집의 이동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군집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Kane and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군집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군집은 연구자와 자문단이 상의하여 구조화하고 명명하여 제시한 것이다. 군집을 구조화시킨 결과, 군집1은 ‘안정감의 웃음’으로 5개의 진술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2는 ‘친밀함의 웃음’으로 6개의 진술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3은 ‘자기행복감의 웃음’으로 15개의 진술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4는 ‘성취감의 웃음’으로 10개의 진술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5는 ‘우월감의 웃음’으로 7개의 진술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6은 ‘모면의 웃음’으로 7개의 진술문들이 포함된다. 군집에 부여되는 번호는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며 군집의 순위와는 관련이 없다. 시각화된 군집지도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군집지도

범주화된 각 군집의 명칭과 그에 포함된 진술문의 내용은 [표 2-2]과 같다.

[표 2-2]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의 웃음요인의 범주 및 세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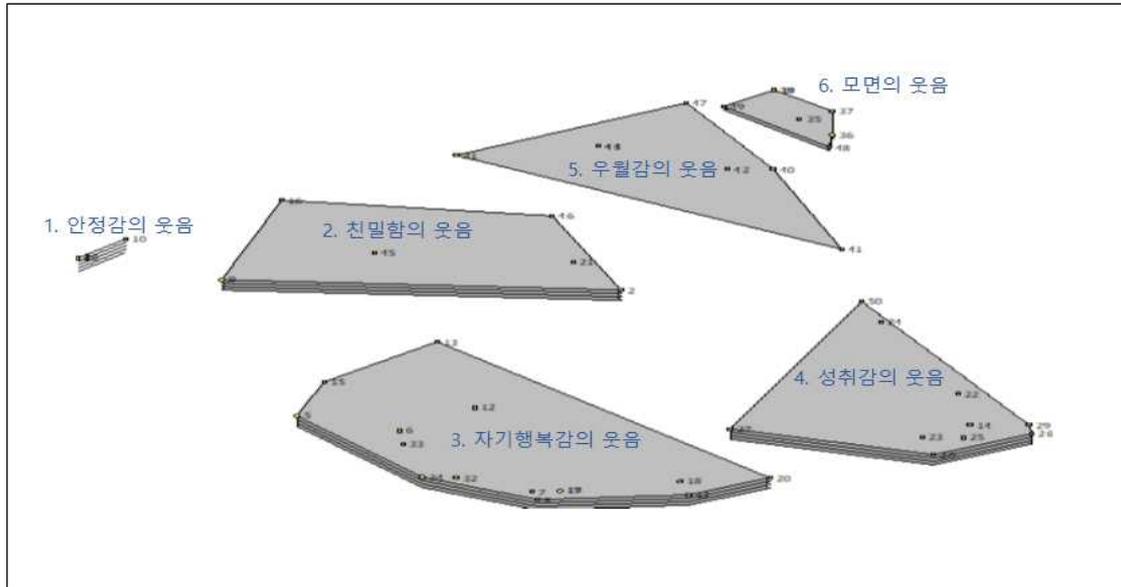
| 군집번호 | 군집명 | 진술문 |
|------|----------------------------|--|
| 1 | 안정감의 웃음 (n=5) | 1.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3.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4.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10.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웃는다 28.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 2 | 친밀함의 웃음 (n=6) | 2. 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다 9. 나는 나를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웃는다 16. 나는 축하받거나 축하할 때 웃는다 21. 나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할 때 웃는다 45. 나는 누가 내 편을 들어 줄 때 웃는다 46.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장구쳐줄 때 웃는다 |
| 3 | 자기 행복감의 웃음 (n=15) | 5.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공짜로 생겼을 때 웃는다 6. 나는 내가 동물이나 식물을 돌볼 때 웃는다 7.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는다 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웃는다 11. 나는 학원 끝났을 때 웃는다 12. 나는 용돈이 생겼을 때 웃는다 13.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때 웃는다 15.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았을 때 웃는다 17. 나는 재미있는 것을 볼 때(TV, 유튜브, 영화) 웃는다 18.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운동, 음악, 게임) 웃는다 19. 나는 놀이공원 갔을 때 웃는다 20. 나는 재미있는 생각 할 때 웃는다 32. 나는 간접받지 않을 때 웃는다 33.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 웃는다 34.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웃는다 |
| 4 | 성취감의 웃음 (n=10) | 14. 나는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22. 나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웃는다 23. 나는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웃는다 2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25.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26. 나는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 냈을 때 웃는다 27. 나는 나의 외모가 만족스러울 때 웃는다 29. 나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웃는다 30.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 때 웃는다 50.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웃는다 |

| | | |
|---|---------------------|---|
| 5 | 우월감의 웃음 (n=7) | 31. 나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할 때 웃는다 40. 나는 거짓말로 장난칠 때 웃는다 41.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비)웃는다 42. 나는 다른 사람을 장난으로 놀리거나 골탕 먹일 때 웃는다 43.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때 웃는다 44.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 웃는다 47. 나는 친구가 부러워서 질투가 날 때 웃는다 |
| 6 | 모면의 웃음 (n=7) | 35. 나는 무섭거나 긴장되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웃는다 36. 나는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웃는다 37. 나는 귀찮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웃는다 38. 나는 부끄럽거나 쑥스러울 때 웃는다 39. 나는 실수해서 창피할 때 웃는다 4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웃는다 49. 나는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스럽고 어이없을 때 웃는다 |

4) 군집 평정지도(Cluster Rating Map)

군집 평정지도는 각 진술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각 진술문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군집의 상대적 평정총을 달리하는 도식화를 통해 군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웃음의 핵심적인 요인을 알아내는 것이 척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진술문들의 중요도를 평정질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세부적인 자료의 활용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표군집의 층이 두터울수록 중요성의 평균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Rosas and Kane 2012).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4학년 어린이, 보호자, 교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각 진술문들에 대한 중요성 알아보았다.

중요성의 군집 평정지도를 통해 참여자들은 ‘안정감의 웃음’군집이 웃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우월감의 웃음’군집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의 중요성에 따른 평정값은 안정감의 웃음 (3.97) > 성취감의 웃음 (3.41) > 자기행복감의 웃음(3.30) > 친밀함의 웃음 (3.15) > 모면의 웃음(2.31) > 우월감의 웃음(1.63)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의 중요도 평정지도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군집의 중요성에 대한 평정 지도

5)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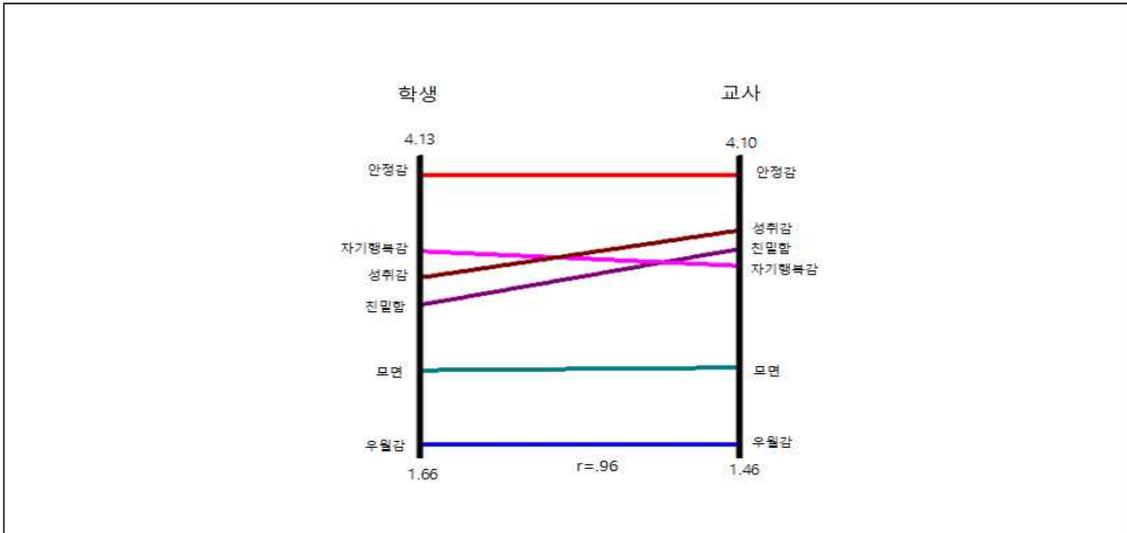
패턴 매칭은 평정을 통해 각 진술문이 얻은 평균값을 가지고 이를 교차해 항목이나 군집 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군집 단위로 진행되지만, 군집내의 진술문에도 적용하는 등의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에는 두 집단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기울기가 클 경우에는 의견의 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각 군집별 중요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평정한 각 군집의 중요성에 대한 상관관계²⁾를 분석한 결과, $r = .96$ 로 나타나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각 군집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인식한 군집의 중요성에 대한 패턴 매칭은 [그림 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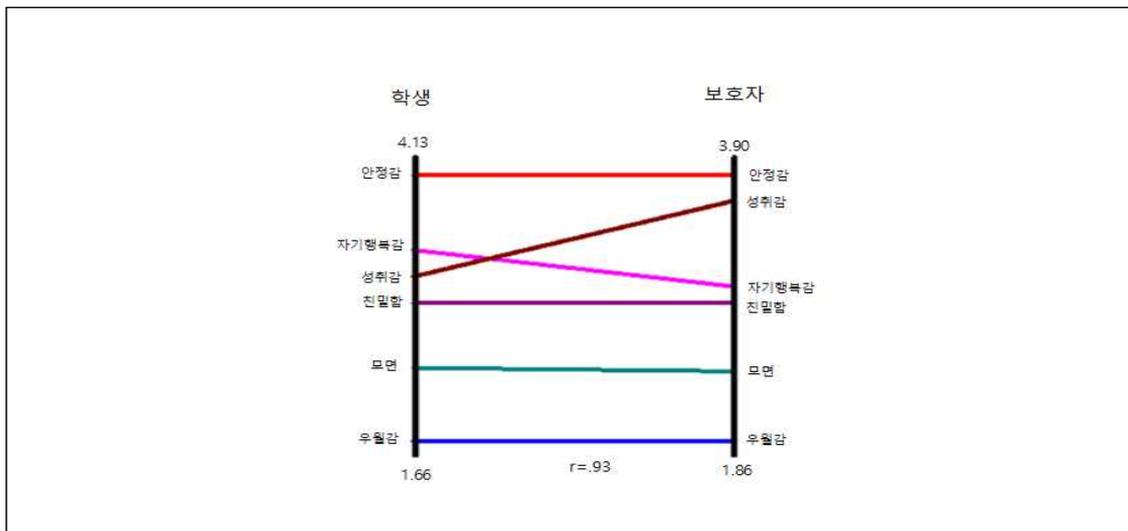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도, $r = .93$ 으로 나타나 의견의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안정감의 옷음’을 가장 중요하게, ‘우울감의 옷음’을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군집은 ‘성취감의 옷음’으로 어린이들보다 보호자들이 성취감의 옷음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이 인식한 중요군집의 패턴 매칭은 [그림

2) 두 평정 패턴매칭을 하면, 패턴 사이의 상관관계의 전반적인 강도를 보여주는 피어슨의 적률 상관 계수(r)가 함께 제시된다. 이 상관계수는 연속형 두 변수 간의 직선적 관계 정도를 점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연속형 변수간의 관련성 평가에서 사용한다. 범위는 -1과 1 사이에 존재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두변수가 함께 줄고 양수 일때는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통상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r = .30$ 이상 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2-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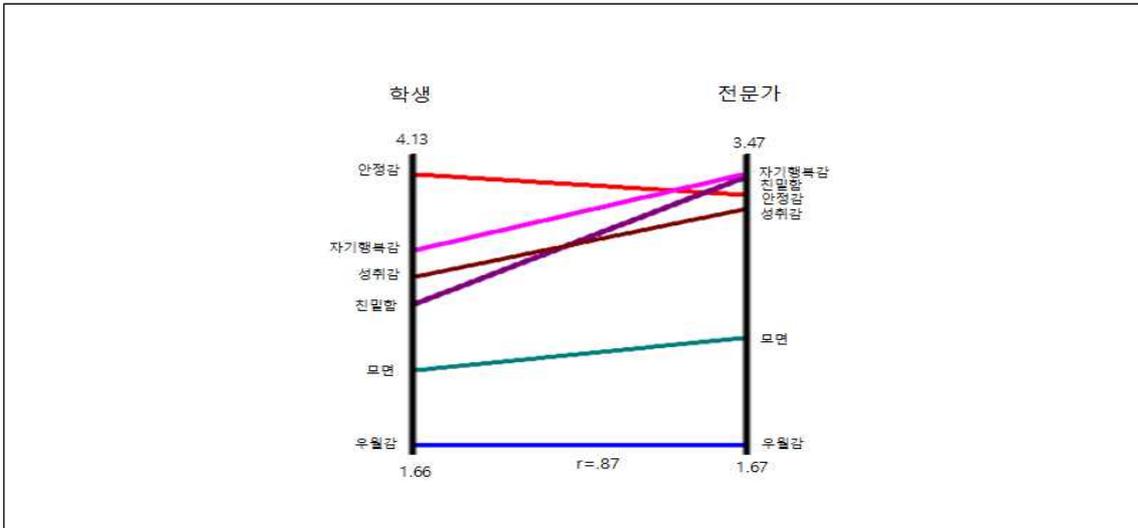


[그림 2-4]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패턴 매칭



[그림 2-5]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의 패턴 매칭

어린이들과 전문가들은 연결집단 중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인식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어린이들은 ‘안정감의 웃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자기행복감의 웃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가 가장 큰 군집은 ‘친밀함의 웃음’으로, 어린이들에 비해 전문가들이 이 군집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과 전문가들이 인식한 중요군집의 패턴 매칭은 [그림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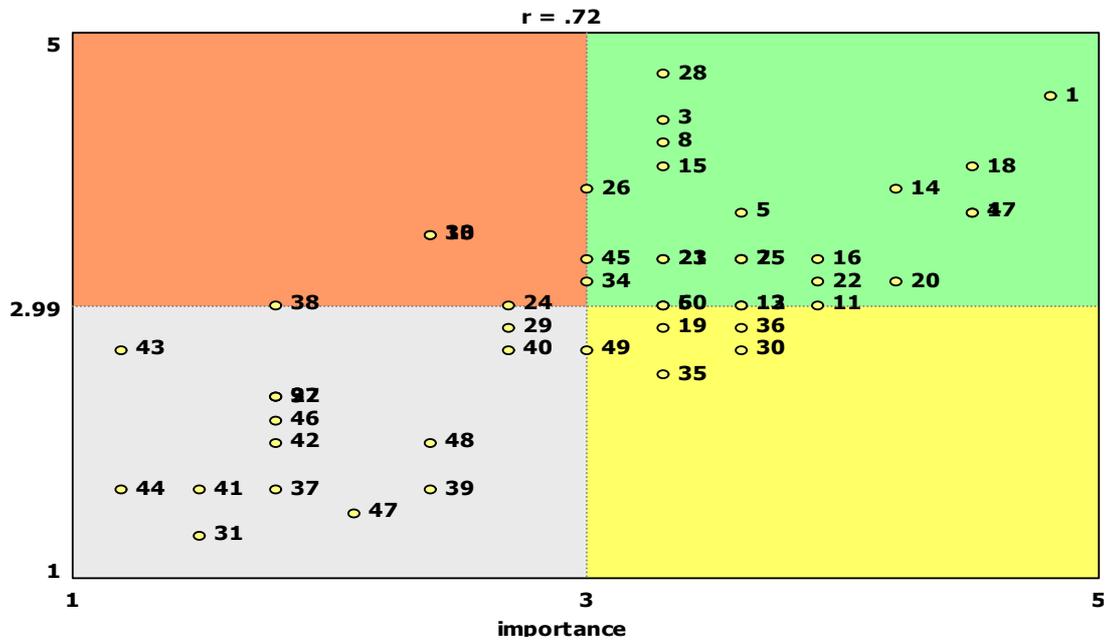


[그림 2-6] 어린이들과 전문가들의 패턴 매칭

6) 고존 (Go- Zone)

고존은 이변량 그래프로 패턴매칭과 같이 중요성의 평정변수를 비교한다. 그러나 군집에 속한 각 진술문의 중요성을 모두 합쳐서 분석한 패턴매칭과 달리 고존은 각 진술문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따져보는 분석이다. 고존이라는 용어는 즉시 실행되거나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진술문들의 위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평정값을 X축으로 하고 비교대상 집단의 평정값을 Y축으로 하여 모든 진술문을 2차원 그래프 위에 표시하고, 두 평정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면을 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고존 그래프는 각 평정변수들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으로 나누어지며, 1사분면(사분면의 오른쪽 위)에 위치한 진술문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값을 가진 항목들로, 어린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웃음의 발생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어린이들이 지각한 고존을 분석한 결과 고존 영역에 속한 요인들은 모두 21개로 나타났으며 평균이 4.00이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재미있는 것을 볼 때(TV, 유튜브, 영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운동, 음악, 게임)’,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로 대부분 정서적인 안정감의 웃음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 들의 고존을 시각화 하면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어린이들의 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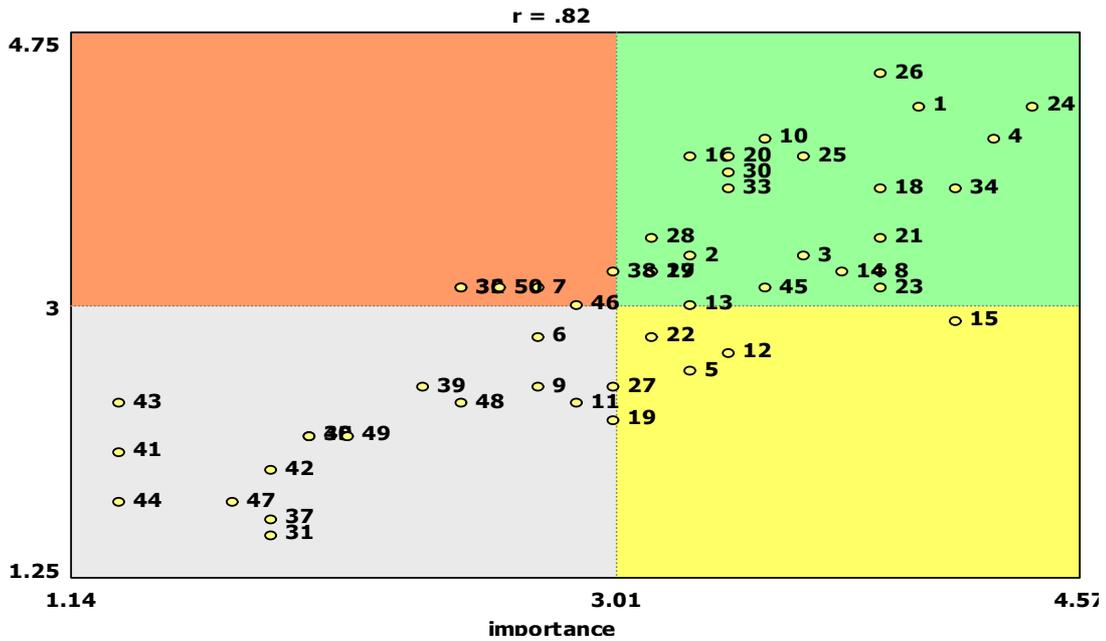
고존에 속한 진술문들을 제시 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고존 중요 진술문 및 평균 - 어린이

| 군집명 | 진술문 | 평균 |
|--------------------|---------------------------------|-----|
| 안정감의 웃음 (n=4) |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4.9 |
| |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 4.1 |
| |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4.1 |
| |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4.4 |
| 친밀함의 웃음 (n=3) | 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웃는다 | 3.5 |
| | 나는 축하받거나 축하할 때 웃는다 | 3.6 |
| | 나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할 때 웃는다 | 3.4 |
| 자기행복감의 웃음 (n=8) |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공짜로 생겼을 때 웃는다 | 3.8 |
| |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는다 | 3.5 |
| |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웃는다 | 4.0 |
| | 나는 용돈이 생겼을 때 웃는다 | 3.3 |
| |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허락받았을 때 웃는다 | 3.9 |
| | 나는 재미있는 것을 볼 때(TV, 유튜브, 영화) 웃는다 | 4.1 |
| |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운동, 음악, 게임) 웃는다 | 4.4 |
| 나는 재밌는 생각 할 때 웃는다 | 3.6 | |

| | | |
|------------------|-----------------------|-----|
| 성취감의 웃음 (n=5) | 나는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 4.1 |
| | 나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웃는다 | 3.5 |
| | 나는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웃는다 | 3.4 |
| |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 3.5 |
| |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웃는다 | 3.1 |
| 모면의 웃음 (n=1) | 나는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웃는다 | 3.1 |

다음으로 연결집단(교사, 보호자, 전문가)이 지각하고 있는 주요한 웃음 요인의 진술문들을 알아보기 위해 고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22개의 요인들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4.0이상의 요인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 냈을 때’ 등이다. 연결집단의 고준을 시각화하면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연결집단의 고준

고준에 속한 진술문들을 제시 하면 [표 2-4]과 같다.

[표 2-4] 고존 중요 진술문 및 평균 - 보호자, 교사, 전문가

| 군집명 | 진술문 | 평균 |
|----------------------|---------------------------------|-----|
| 안정감의 웃음 (n=5) |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4.3 |
| |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거나 손을 잡을 때 웃는다 | 3.5 |
| |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4.3 |
| |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웃는다 | 3.9 |
| | 나는 가족이 자랑스러울 때 웃는다 | 3.3 |
| 친밀함의 웃음 (n=3) | 나는 축하받거나 축하할 때 웃는다 | 3.7 |
| | 나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할 때 웃는다 | 3.8 |
| | 나는 누가 내 편을 들어 줄 때 웃는다 | 3.3 |
| 자기행복감의 웃음 (n=7) |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웃는다 | 2.8 |
| |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될 때 웃는다 | 2.4 |
| | 나는 재미있는 것을 볼 때(TV, 유튜브, 영화) 웃는다 | 3.2 |
| | 나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운동, 음악, 게임) 웃는다 | 3.9 |
| | 나는 재미있는 생각 할 때 웃는다 | 3.8 |
| |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 웃는다 | 3.7 |
| 성취감의 웃음 (n=7) |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웃는다 | 4.1 |
| | 나는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 3.6 |
| | 나는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웃는다 | 3.6 |
|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 4.5 |
| | 나는 착한 일을 해서 뿌듯할 때 웃는다 | 3.9 |
| | 나는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 냈을 때 웃는다 | 4.4 |
| | 나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웃는다 | 3.2 |
|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 때 웃는다 | 3.7 | |

3. 어린이 웃음의 이해

1) 웃음의 범주

어린이들의 웃음요인을 밝혀내고 50개 요인을 개념화하여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도출된 50개의 웃음요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 된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웃음에 대한 범주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위한 웃음에 대한 범주이다. 정서적인 관계의 웃음 범주에는 ‘안정감의 웃음’, ‘친밀감의 웃음’, ‘자기행복감의 웃음’ 군집이 포함 된다. 사회적 관계의 웃음 범주에는 ‘성취감의 웃음’, ‘우월감의 웃음’, ‘모면의 웃음’ 군집이 포함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한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양식이나 대인관계, 관습이나 가치, 기술 등을 학습하며 삶의 틀을 세워나간다(김은혜, 2019). 이러한 여러 가지 습관의 훈련들은 사회성발달의 기초가 되며 성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민숙정, 1990). 정서적 관계의 웃음에는 일반적으로 웃음이 갖는 긍정적인 감정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복감, 즐거움, 편안함과 같은 속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정서와 웃음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정감, 친밀감, 자기행복감의 웃음을 통해 정서적인 충족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한다면 내면이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위한 웃음은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의 사회성은 인간발달의 기초이며, 인간의 삶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4학년 시기의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요구 받는다. 이러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웃음이 정서적인 감정변화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웃음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정의되며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타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한 영역으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류종영, 2006). 성취감, 우월감, 모면이라는 웃음은 어린이들이 타인과 관계 맺기를 위한 상호작용에도 웃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불일치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어린이들이 웃음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세련된 사회적 관계 맺기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3-1] 어린이의 웃음 범주

| 범주 | 군집명 (진술문 수) |
|------------------------|----------------|
| 정서적인 관계의 웃음 (26) | 안정감의 웃음 (5) |
| | 친밀함의 웃음 (6) |
| | 자기행복감의 웃음 (15) |
| 사회적인 관계의 웃음 (24) | 성취감의 웃음 (10) |
| | 우월감의 웃음 (7) |
| | 모면의 웃음 (7) |

2)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지각하는 군집별 중요성 비교

최종적으로 도출된 6개 군집을 평정한 참여자들의 집단별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어린이, 교사, 보호자는 ‘안정감의 웃음’군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

면 전문가는 ‘자기행복감의 웃음’범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어린이들과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반영 된 결과로 보인다. 4개 집단 모두 ‘모면의 웃음’과 ‘우월감의 웃음’ 군집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의 웃음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 질수 있다. 연구결과는 4학년 어린이들이 교우관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배우면서 사회화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적 안정에서 비롯된 웃음 다음으로 어린이들은 ‘자기행복감의 웃음’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어린이들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는 자율성을 확보 했을 때 나오는 웃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연결 집단인 교사와 보호자들은 ‘성취감의 웃음’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였다.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성취감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높은 경쟁지수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업이나 집단 활동과 같은 다른 어린이들과의 경쟁상황에 놓인 어린아이들의 경쟁은 상당한 동기유발 가치를 지니게 되며, 이로 인해 점차 감정을 감추는 방법이라든가 가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며 사회에 적응되어 간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경쟁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성취감보다는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어 내는 성취감의 본질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경쟁과 웃음은 서로 상반된 의미가 아닌 어린이들의 성숙한 성장과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웃음요인의 중요성에 따른 군집 순위

| 군집명 | 집단별 중요도 순위 | | | |
|-----------|------------|----|-----|-----|
| | 어린이 | 교사 | 보호자 | 전문가 |
| 안정감의 웃음 | 1 | 1 | 1 | 3 |
| 친밀함의 웃음 | 4 | 3 | 4 | 2 |
| 자기행복감의 웃음 | 2 | 4 | 3 | 1 |
| 성취감의 웃음 | 3 | 2 | 2 | 4 |
| 우월감의 웃음 | 6 | 6 | 6 | 6 |
| 모면의 웃음 | 5 | 5 | 5 | 5 |

3)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웃음요인의 특성 비교

군집의 세부 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진술문들을 통해 주요한 웃음요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안정감의 웃음’에서는 어린이, 교사, 보호자 집단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에 가장 높은 평점을 주었다. ‘친밀함의 웃음’에서는 어린이, 교사, 보호자 집단 모두 ‘축하하거나 축하받을 때 웃는다.’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행복감의 웃음’

에서 어린이들과 전문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할 때(운동, 음악, 게임)’를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교사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를 보호자들은 ‘나는 재밌는 생각 할 때’를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성취감의 웃음’에서는 어린이들과 연결집단이 모두 다르게 주요 진술문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를 교사들은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냈을 때’를 보호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를 전문가들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 때’를 가장 주요한 웃음 요인으로 인식했다. ‘우월감의 웃음’에서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이 ‘거짓말로 장난 칠 때’를 교사들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때’를 전문가들은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 할 때’를 주요한 웃음 요인으로 인식했다. ‘모면의 웃음’에서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예의상 웃어야 할 때’, 보호자들과 전문가들은 ‘부끄럽거나 쑥스러울 때’를 주요 웃음요인으로 인식했다. 어린이들과 연결집단이 인식하는 웃음 요인들 중에서 가장 높게 평정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3-3]과 같다.

[표3-3] 군집별 주요한 웃음 요인

| 군집명 | 군 집 별 주 요 한 웃 음 요 인 | | | |
|-----------|----------------------------------|-----------------------------------|-------------------------------|----------------------------------|
| | 어 린 이 | 교 사 | 보 호 자 | 전 문 가 |
| 안정감의 웃음 |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웃는다 |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웃는다 |
| 친밀함의 웃음 | 나는 축하하거나 축하받을 때 웃는다 | 나는 축하하거나 축하받을 때 웃는다 | 나는 축하하거나 축하받을 때 웃는다 | 나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농담 할 때 웃는다 |
| 자기행복감의 웃음 |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할 때(운동, 음악, 게임) 웃는다 |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때 웃는다 | 나는 재밌는 생각 할 때 웃는다 |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할 때(운동, 음악, 게임) 웃는다 |
| 성취감의 웃음 | 나는 시험점수 잘 나왔을 때 웃는다 | 나는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 냈을 때 웃는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웃는다 |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 때 웃는다 |
| 우월감의 웃음 | 나는 거짓말로 장난 칠 때 웃는다 |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때 웃는다 | 나는 거짓말로 장난 칠 때 웃는다 | 나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잘난 척 할 때 웃는다 |
| 모면의 웃음 | 나는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웃는다 | 나는 예의상 웃어야 할 때 웃는다 | 나는 부끄럽거나 쑥스러울 때 웃는다 | 나는 부끄럽거나 쑥스러울 때 웃는다 |

어린이들의 주요한 웃음 요인은 성인들의 생각하는 주요 웃음 요인에 비해 단순하다. 어린이들은 가시적인 웃음의 요인을 중요하게 평가 하였다. 어린이들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하고, 축하의 이벤트를 통해 친밀함을 느끼며 기뻐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감에 젖어 웃고, 시험점수가 잘 나왔을 때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이렇듯 어린이들의 웃음에는 복잡함보다는 ‘아이다움’의 단순함이 묻어 있다. 어린이들이 더 많이 웃기를 원한다면 위의 요인들과 같은 단순함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고민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들은 또한 거짓말로 장난을 칠 때의 웃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월성 이론에서의 웃음은 웃음의 대상이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것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나 자신의 이전의 결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Martin & Lefcourt, 1986). 어린이들이 일반적인 우월상황에서의 웃음보다 장난치고 거짓말하는 가운데 웃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아직 아동과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월감에서 나오는 웃음은 때로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상황에 맞는 웃음과 타인을 위한 배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나은 또래 관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웃음도 여러 단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단계 내부에는 어떠한 본질적 동기가 포함되며, 긍정의 웃음뿐만 아니라 부정의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아직 어른들 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쌓이지 않아서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웃음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능숙함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 것이다. 어딘가 부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웃음도 어린이들에게겐 경험이 될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의 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더 많이, 더 자주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혜, 2019, “정신질환자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의 성장경험”,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숙정. 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종렬, 2006, 웃음거리 : 웃음의 미학. 시대와 철학, 17(3), 43- 64.

왕은자, 2009, “기업상담 효과에 대한 세 관련 주체(내담자, 관리자, 상담자)의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 1045.

Kane, M., and Trochim, W. M.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n: Sage.

Lefcourt, H. M., & Martin, R. A. (1986). Humor and life stress: Antidote to adversity. New York: Springer-Verlag.

Rosas, S. R. and Kane, M. 2012, “Quality and rigor of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 pooled study analysi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5(2): 236~245.

어린이 웃음의 개념화를 통한 연결 집단 간 인식 비교 토론문

민순덕*

웃음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후에도 지속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송고하게 만드는 문화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진화심리학 분야에서는 다윈주의적 관점에서 웃음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지적감정표현이라고 명명될 만큼 고차원의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웃음은 그 시대의 상황,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채원의 연구는 웃음의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어린이와 그 주변의 친밀한 대상들과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아주 흥미롭고 창의적인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방법에서 보여주듯, 그림, 도표, 지도 등을 통한 시각화 작업은 집단 간 인식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즉, 포인트 지도(point map), 군집지도(cluster map), 군집평정지도(cluster rating map), 패턴매칭(pattern-matching), 고존(go-zone) 등을 잘 활용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에서 좀 더 발전시킬 내용에 대한 제언 또는 후속연구의 과제 등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하려고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으로는

첫째, 연구방법론에서의 양적, 질적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점이다. 어린이와 보호자인 참여자의 진술문 취합과 전문가 그룹의 구조화, 개념화 작업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끌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그림, 지도, 도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효과의 극대화와 직관적 통찰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집단 간의 인식비교를 통하여 어린이와 연결 집단 간의 관계에서 각각의 친밀도 혹은 가치판단을 추론할 수 있는 점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need와 want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부분과 후속연구에서 진행할 내용을 첨언하면

첫째, 연구 대상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보다 객관적인 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초등 4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본격적으로 심신의 변화를 강하게 겪는 청소년기의 예비 단계에 접어드는 고학년의 연구도 의

* 한국성서대, 칼빈대 외래교수

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웃음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 대인관계 등을 통한 심리적인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성에 충실한 웃음에서 점차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주어지고 강제되고 요구되는 웃음으로의 변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심리를 분석한다면 의사소통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의 웃음에 관련된 연구는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 함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중요한 것으로는 연구 대상의 연결집단 중 특히 전문가그룹의 인식의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어린이와 전문가 그룹의 인식의 차가 크고 상관관계가 낮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하는 그룹인 만큼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천진스럽고 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어느새 메마르고 영혼이 없는 작위적인 웃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맘껏 웃고 자신의 감정의 역동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